E 01-2019-04

2019 겨울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 2020년 10대 농정 이슈
–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2019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김문희 kmh0618@krei.re.kr, 김충현 goldbl@krei.re.kr, 서홍석 hongseokseo@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목 차

Ⅰ.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4
4. 물가 ····· 6
5. 금융·환율 ····· 11
6. 세계경제 ····· 13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15
2. 농촌 물가 ····· 16
3. 농림어업 취업자 ····· 19
4. 농축산물 수출입 ····· 21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27
2. 엽근채소 ····· 32
3. 양념채소 ····· 38
4. 과일 ····· 45
5. 과채 ····· 52
6. 축산 ····· 59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조사 개요 ····· 67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 68

특별주제

2020년 10대 농정 이슈 ····· 83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 103

요 약

Ⅰ. 일반경제 동향

- 2019년 4/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하였으며, 민간 및 정부 소비,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가 영향을 미침.
- 2019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2,82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41만 명으로 나타남.
- 2019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2% 증가함. 2019년 11월 소매판매는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 감소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승용차 내수판매량,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19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수도·가스, 공업제품, 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5%, 0.2%, 0.7%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은 2.5% 하락함.
- 2019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7.7로 전년 동기 대비 5.7%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함.
- 2019년 11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5%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7%, 0.6% 증가하였음. 2019년 12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소폭 하락함.
- 2019년 4/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완 환율 모두 전기 대비 하락함.
- 2019년 3/4분기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경우 2.1%, 중국 6.0%, 일본 0.4%, 유로 0.2%를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9년 4/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7% 전기 대비 2.2% 성장함.
- 2019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 하락, 전기 대비 6.3% 상승함.
  - 부류별로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곡물, 청과물은 하락함.
- 2019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 전기 대비 0.4%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함. 노무비, 경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1.6%상승하였으나 자산구입비는 1.0% 하락함.
- 2019년 4/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3.1로 전년 동기 대비 2.4%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의 악화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2%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3%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임.
- 2019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함.
- 2019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8억 4,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4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2020년 10대 농정이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2.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의 약 53%, 도시민의 약 55%가 공감하고 있음.
  -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도시민의 경우 2011년의 73.1%, 2015년의 60.9%보다 하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음.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도시민의 64%가 '가치가 많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농업·농촌의 주요 공익적 기능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에는 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고, 직불제 단가가 인상되는 노지 채소·과수 재배 농가의 긍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 WTO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중요한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과 일치하며, 개도국 지위 전환 보완대책으로 필요한 과제로 농업인은 '공익형 직불제(44.7%)'를, 도시민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강화(37.9%)'를 우선 선택함.
  - 도시민 중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56%로 2013년보다 32%p 증가함.
- 도시민의 35%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으며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답변함.
  - 도시민 응답자의 35%는 향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귀농·귀촌의 주된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를 선택함.
  -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주거환경', '이웃환경', '보건의료 환경' 만족도가 개선됨. 한편 농업 경영의 주된 위협요인으로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올해 농식품 주요 이슈로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을 가장 많이 선택함.
  - 농업인은 올해 농식품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로 '자연재해(37.0%)', '농산물 가격 안정(27.7%)', '농민수당(27.5%)'을 선택한 반면, 도시민은 '가축 질병(53.6%)', '농산물 가격 안정(29.1%)', '자연재해(26.5%)' 순으로 지적하고 있음.
  -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농업인은 '자연재해(40.9%)', '농민수당(29.7%)'을 답변하였으며, 도시민은 '가축 질병 관리(34.3%)', '식품 안전성(28.3%)'을 지적함.

Ⅰ. 일반경제 동향[1)]

1. 경제성장[2)]

- 2019년 4/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했으며, 민간 및 정부 소비, 설비투자의 증가세 확대와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19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5% 증가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18[p]					2019[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DP 성장률	2.7	1.0	0.6	0.5	0.9	2.0	-0.4	1.0	0.4	1.2(2.2)
민간소비	2.8	0.7	0.5	0.4	0.8	1.9	0.1	0.7	0.2	0.7(1.7)
정부소비	5.6	1.9	0.6	1.6	2.8	6.5	0.4	2.2	1.4	2.6(6.7)
건설투자	-4.3	0.9	-2.5	-6.0	1.8	-3.3	-0.8	1.4	-6.0	6.3(0.5)
설비투자	-2.4	4.3	-8.4	-4.0	3.2	-8.1	-9.1	3.2	0.6	1.5(-4.2)
총 수 출	3.5	3.5	0.7	4.0	-1.4	1.5	-3.2	2.0	4.6	-0.1(3.1)
총 수 입	0.8	4.3	-2.3	-1.1	1.6	-0.6	-3.4	2.9	1.2	0.0(0.6)

주 1. 2018[p], 2019[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설비 투자에 대한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 투자 역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출이 소폭 감소하였음.

---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문희 연구원(kmh0618@krei.re.kr), 서홍석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0.01.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1.17.)」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19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 오락문화 등 서비스 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여 전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정부소비의 경우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2.6% 증가함.
- 2019년 4/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늘면서 전기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의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5% 증가함.
- 수출은 기계류 등이 증가하였으나 운수 서비스 등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0.1% 하락하였으며, 수입은 자동차 등이 증가하였으나 거주자 국외소비가 줄어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음.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농림어업은 재배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2.2% 증가함.
- 제조업은 기계 및 장비 등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1.6% 성장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7%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8p					2019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농림어업	1.5	3.2	-2.6	-3.5	2.8	2.6	4.7	-3.6	0.6	2.2(3.7)
제조업	3.4	0.8	1.6	1.6	1.6	1.4	-3.3	1.1	2.4	1.6(1.7)
서비스업	3.2	1.3	0.4	0.5	0.5	2.6	0.8	0.8	0.6	0.7(2.8)
(도소매 및 음식숙박)	2.3	-0.7	0.7	1.4	1.2	1.1	-2.3	0.8	1.4	1.5(1.4)
(부동산)	2.1	3.1	-1.2	-0.1	-0.3	2.2	3.1	-0.4	0.0	0.2(2.8)
(정보통신)	4.1	3.1	-1.6	-1.0	-0.1	3.6	6.9	-1.5	-2.9	1.7(4.1)
(사업서비스)	1.7	1.1	0.1	-0.7	0.7	2.0	0.4	1.5	-0.1	0.7(2.6)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8.1	0.7	1.8	4.5	3.1	8.2	-0.9	2.1	3.8	1.7(6.9)

주 1. 2018p, 2019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2. 고용[3)]

- 2019년 4/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2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함.

- 2019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2,739만 명으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함.
  -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44만 4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가 5만 6천 명, 일용근로자가 3만 1천 명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 1천 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 4천 명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18					2019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경제활동인구	27,895	27,464	28,125	28,080	27,912	28,186	27,702	28,432	28,328	28,283	1.3
(경제활동참가율)	63.1	62.3	63.7	63.5	63.0	63.3	62.4	63.9	63.6	63.4	0.6
취 업 자	26,822	26,283	27,019	27,015	26,971	27,123	26,461	27,256	27,382	27,393	1.6
• 농 림 어 업	1,340	1,056	1,457	1,481	1,367	1,395	1,158	1,475	1,538	1,409	3.1
• 광 공 업	4,529	4,597	4,509	4,496	4,514	4,444	4,447	4,438	4,417	4,473	-0.9
(제 조 업)	4,510	4,575	4,487	4,479	4,499	4,429	4,432	4,424	4,403	4,458	-0.9
• 건 설 업	2,034	1,977	2,031	2,035	2,094	2,020	1,970	2,030	2,034	2,044	-2.4
• 도소매·음식숙박업	5,965	6,000	5,979	5,955	5,928	5,966	5,943	5,996	5,982	5,943	0.3
실 업 자	1073	1,181	1,105	1,065	942	1063	1,241	1,176	946	891	-5.4
실업률(계절조정)	3.8	4.3	3.9	3.8	3.4	3.8	4.5	4.1	3.3	3.1	-8.8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2020.01.15.)」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1.17.)」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19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2% 증가함.

- 2019년 11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3.4%), 의복 등 준내구재(5.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9%)가 모두 증가하여 전월 대비 3.0% 증가함.

- 2019년 12월 소매판매에는 백화점 및 할인점의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승용차 내수판매량,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18p				2019p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민 간 소 비	0.7	0.5	0.4	0.8	0.1	0.7	0.2	-	-	-
소 매 판 매	2.1	0.6	-0.2	-0.1	1.3	1.0	0.2	-2.3	-0.4	3.0
(내 구 재)1	4.7	0.2	-2.6	0.3	2.0	-0.4	0.9	-0.3	-2.2	3.4
(준내구재)2	0.7	3.0	1.7	0.6	-2.4	3.6	-1.9	-3.7	-2.7	5.6
(비내구재)3	1.5	-0.2	0.4	-0.5	2.5	0.4	0.7	-2.8	1.4	1.9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8년, 2019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19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8만 원으로 전기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 이전소득,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 4.8% 증가하였음. 반면 비경상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4%, 4.9%, 2.5% 감소하였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1.17.)」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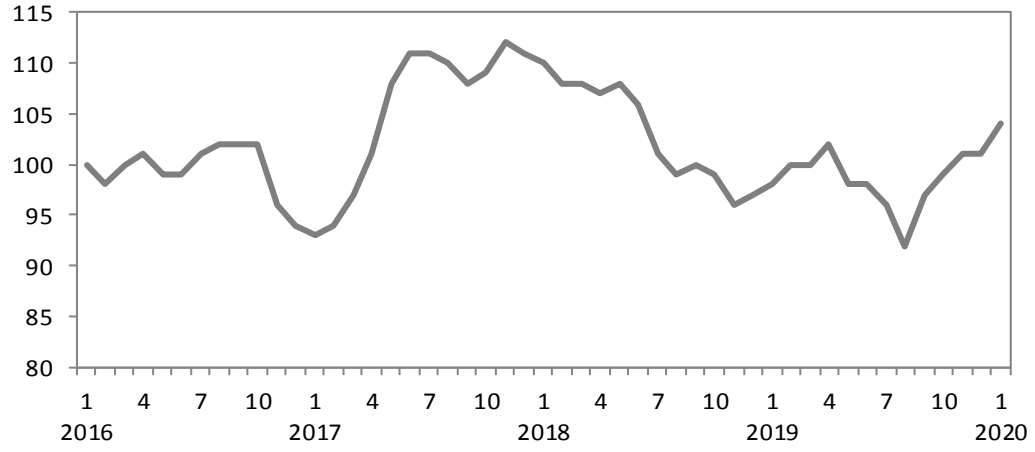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8				2019		
	1/4	2/4	3/4	4/4	1/4	2/4	3/4
소 득	3.7	4.2	4.6	3.6	1.3	3.8	2.7
경상소득	7.5	6.3	5.7	4.8	1.7	4.2	3.3
(근로소득)	6.1	5.3	4.5	6.2	0.5	4.5	4.8
(사업소득)	5.7	3.8	1.1	-3.4	-1.4	-1.8	-4.9
(재산소득)	3.4	34.4	9.3	4.9	-26.0	7.0	-2.5
(이전소득)	19.2	16.6	22.8	11.9	14.2	13.2	8.6
비경상소득	-79.2	-68.6	-49.6	-55.3	-43.5	-44.6	-63.4

자료: 통계청

- 2020년 1월 소비심리지수[5]는 전월(101) 대비 소폭 증가한 104로 전년 동월(98) 대비 6.1% 상승함.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19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5.2로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함.
  - 품목성질별로 전기·수도·가스, 공업제품, 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0.2%, 0.7%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이 2.5% 하락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104.5	103.9	104.3	104.8	104.8	104.9	104.5	104.9	104.9	105.2
	(1.5)	(1.1)	(1.5)	(1.6)	(1.8)	(0.4)	(0.6)	(0.7)	(0.0)	(0.3)
상 품	102.7	102.1	102.2	103.1	103.2	102.4	101.7	102.5	102.1	103.0
	(1.3)	(0.5)	(1.2)	(1.6)	(2.1)	-(0.3)	-(0.4)	(0.3)	-(1.0)	-(0.2)
농축수산물	113.6	112.2	110.0	117.1	115.0	111.7	112.5	111.3	110.7	112.2
	(3.7)	(0.7)	(2.0)	(4.9)	(7.1)	-(1.7)	(0.2)	(1.2)	-(5.4)	-(2.5)
공업 제품	102.2	101.7	102.3	102.5	102.5	102.1	101.0	102.3	102.3	102.7
	(1.3)	(0.7)	(1.5)	(1.8)	(1.1)	-(0.2)	-(0.7)	(0.0)	-(0.2)	(0.2)
전기·수도·가스	86.9	87.5	87.5	84.0	88.7	88.2	88.6	88.6	85.6	90.0
	-(2.9)	-(1.9)	-(3.0)	-(7.0)	(0.3)	(1.5)	(1.3)	(1.3)	(1.9)	(1.5)
서 비 스	105.9	105.4	106.0	106.2	106.2	106.9	106.7	106.9	107.1	106.9
	(1.6)	(1.5)	(1.7)	(1.5)	(1.6)	(0.9)	(1.3)	(0.9)	(0.9)	(0.7)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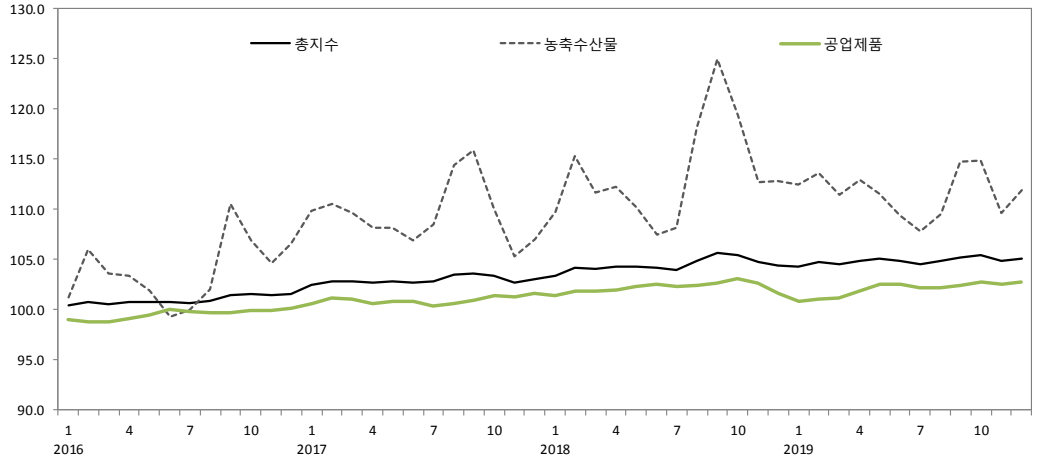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상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의 경우 0.7% 상승함.

6) 물가 부문은 통계청「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2019.12.31.)」, 한국은행「2019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2020.01.21.)」,「2019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2020.01.15.)」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농축수산물은 작황호조로 농산물 가격 안정이 이어져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음.
- 석유류는 전년대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12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택·수도·전기·연료는 상승하였으며 주류·담배, 의류·신발, 기타상품·서비스는 변동이 없었고 통신, 오락·문화는 하락하였음.
  - 전년 동월 대비로 교통 등 9개 부문은 상승하였고 오락·문화, 교육, 통신은 하락하였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19년 4/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로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전기 대비 0.3% 상승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하였고, 농산물 품목별로는 과실이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하였고 기타농산물, 곡물, 채소가 각각 15.9%, 5.8%, 0.1%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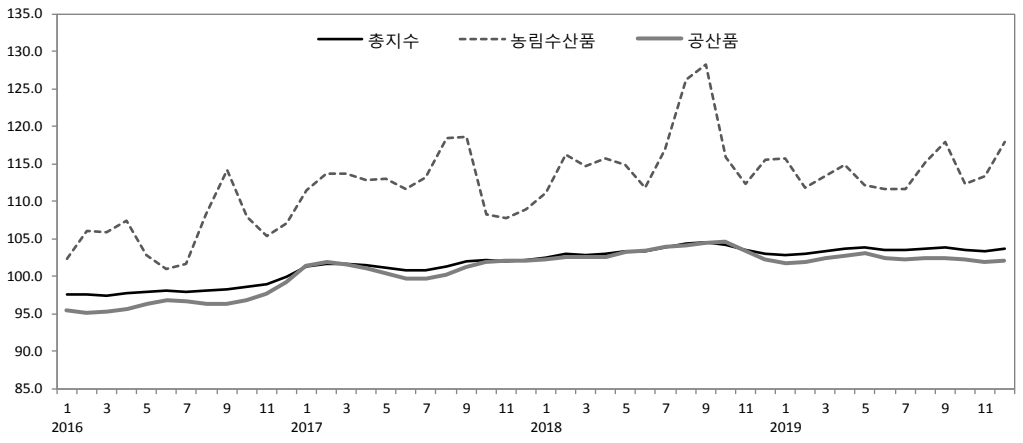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8					2019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4.5	103.9	104.3	104.8	104.8	104.9	104.5	104.9	104.9	105.2	0.3	0.3
농산물	113.6	112.2	110.0	117.1	115.0	111.7	112.5	111.3	110.7	112.2	-2.5	1.3
곡물	117.3	116.0	111.2	122.0	120.0	113.7	117.6	113.0	111.4	113.0	-5.8	1.4
채소	108.1	100.9	105.8	108.2	117.6	118.5	119.6	119.0	118.0	117.5	-0.1	-0.4
과실	121.8	122.9	111.1	134.2	118.8	111.4	110.3	101.9	112.5	120.9	1.8	7.5
기타농산물	115.8	115.0	111.4	116.5	120.2	110.7	120.7	117.3	103.9	101.1	-15.9	-2.7
축산물	125.7	126.1	122.9	124.7	129.0	124.8	130.0	127.2	123.4	118.8	-7.9	-3.7
수산물	107.3	105.6	105.8	110.8	107.1	107.3	103.9	107.6	108.6	109.0	1.8	0.4

자료: 통계청

- 2019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3.6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 2019년 12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및 수산물 등이 올라 전월 대비 4.0% 상승함.
  -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함.
  -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전월 대비 0.5% 상승, 서비스는 전월 대비 보합임.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9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7.7로 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5.7% 하락함.

- 2019년 12월 수출물가지수는 97.5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8%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7.2% 하락함.

- 2019년 4/4분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2.6으로 전기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함. 12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2.9로 전월 대비 1.4% 상승함.

- 2019년 4/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7.7로 전기 대비 3.3%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5.7% 하락하였으며, 12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97.5로 전월 대비 0.8%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103.4	101.4	102.4	106.2	103.6	100.0	99.6	101.5	101.1	97.7
	(0.8)	-(1.8)	(0.8)	(3.2)	(0.8)	-(3.3)	-(1.8)	-(0.9)	-(4.8)	-(5.7)
농림수산품	114.8	113.1	112.3	115.8	117.8	116.7	118.6	117.6	118.1	112.6
	-(4.0)	-(1.2)	-(6.1)	-(7.2)	-(1.3)	(1.7)	(4.9)	(4.7)	(2.0)	-(4.4)
농 산 물	100.1	89.7	93.2	105.0	112.5	115.5	117.1	116.7	118.5	109.8
	(1.8)	-(6.4)	-(9.3)	(1.4)	(23.4)	-(1.6)	(30.6)	(25.2)	(12.8)	-(2.4)
공 산 품	103.4	101.3	102.4	106.2	103.6	99.9	99.5	101.4	101.0	97.7
	(0.8)	-(1.8)	(0.9)	(3.2)	(0.8)	(6.1)	-(1.8)	-(1.0)	-(4.8)	-(5.7)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9년 4/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08.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하였고, 전기 대비 2.4% 하락함.

- 2019년 12월 수입물가지수는 108.8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9%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함.
  - 2019년 12월 기준 원재료의 경우 광산품이 올라 전월 대비 2.4% 상승하였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1.0%, 0.6% 상승함. 또한, 중간재의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5% 상승함.

- 2019년 12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04.6으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108.4	103.87	108.06	111.9	109.9	109.3	107.3	111.4	110.7	108.0
	(6.3)	(0.3)	(7.7)	(10.6)	(6.6)	(0.8)	(3.3)	(3.1)	-(1.1)	-(1.7)
농림수산품	98.3	96.59	98.84	99.03	98.64	102.1	97.4	102.6	103.8	104.6
	-(1.6)	-(7.2)	-(0.7)	(0.3)	(1.6)	(3.9)	(0.8)	(3.8)	(4.8)	(6.1)
농 산 물	97.5	95.33	98.69	98.2	97.78	98.5	95.4	100.0	100.3	98.5
	-(0.1)	-(6.7)	(2.7)	(1.1)	(3.1)	(1.1)	(0.1)	(1.3)	(2.1)	(0.8)
축 산 물	96.0	95.31	94.89	96.96	96.9	105.4	98.1	107.4	106.0	109.9
	-(2.9)	-(6.5)	-(4.8)	-(0.5)	(0.5)	(9.7)	(2.9)	(13.2)	(9.3)	(13.4)
공 산 품	103.4	100.69	102.64	105.85	104.4	104.4	102.3	105.7	105.8	103.7
	(2.4)	-(1.7)	(3.4)	(5.1)	(3.0)	(1.0)	(1.6)	(3.0)	(0.0)	-(0.6)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7)]

- 2019년 11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1.5% 증가)함.

- 2019년 11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7%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19년 11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6%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8	2019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M1[1]	1.9	2.1	1.9	2.6	3.0	3.2	3.3	3.8	4.7	5.0	5.3	7.0
M2[2]	6.8	6.5	6.2	6.8	6.6	6.6	6.7	6.6	6.8	7.6	7.5	7.7
Lf[3]	7.6	7.4	7.1	7.6	7.7	7.9	8.0	8.0	8.2	8.4	8.3	8.4
본원통화[4]	9.2	8.7	8.4	8.8	8.8	9.9	9.2	7.7	9.4	7.5	7.3	8.6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9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2020.01.16.)」과 「2019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2020.01.10.)」, 「2019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0.01.10.)」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19년 12월 국고채(3년) 금리는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0년에 들어서면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단기시장금리는 MMF 수신 증가 등으로 하락함.
  - 코스피는 미·중 1차 무역 합의,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 들어서며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18	2019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3년)	1.83	1.81	1.80	1.79	1.74	1.68	1.50	1.38	1.16	1.29	1.36	1.49	1.39
회사채[1]	2.30	2.26	2.25	2.24	2.21	2.15	2.00	1.89	1.69	1.79	1.86	2.00	1.95
CD유통수익률(91일)	1.91	1.87	1.87	1.90	1.86	1.84	1.80	1.68	1.49	1.54	1.46	1.52	1.53
콜금리[2]	1.77	1.75	1.76	1.76	1.75	1.75	1.76	1.63	1.51	1.52	1.35	1.28	1.28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19년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17원 하락한 1,176원임.
  - 2019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미·중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와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으로 하락하다 2020년 연초 이후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됨.

- 2019년 4/4분기 원/위안 환율은 167원으로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원/100엔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여 1,081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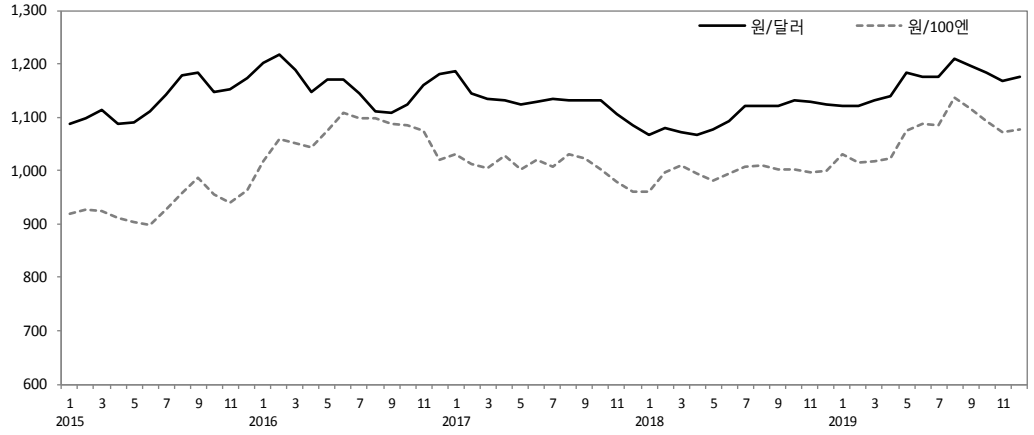
- 2019년 12월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월 대비 확대되었으며, 기간중 표준편차는 전월 대비 확대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00	1,072	1,079	1,122	1,128	1,166	1,125	1,166	1,193	1,176	1,184	1,167	1,176
원/100엔	996	989	989	1,007	999	1,070	1,022	1,060	1,112	1,081	1,094	1,073	1,077
원/유로	1,299	1,317	1,287	1,304	1,286	1,305	1,278	1,310	1,328	1,302	1,309	1,291	1,306
원/위안	166	169	169	165	163	169	167	171	170	167	167	166	168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8)]

- 미국 경제는 양호한 고용상황에 힘입은 견조한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0.01.17.)」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2.9	2.5	3.5	2.9	1.1	3.1	2.0	2.1	-	-
	산업생산(전기비)	3.9	0.6	1.1	1.3	1.0	-0.5	-0.6	0.3	-0.9	1.1
	소매판매(전기비)	4.8	0.9	1.3	0.8	0.4	0.3	1.9	1.4	0.4	0.2
	실업률(계절조정)	3.9	4.1	3.9	3.8	3.8	3.9	3.6	3.6	3.6	3.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4	2.2	2.7	2.6	2.2	1.6	1.8	1.8	1.8	2.1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6	6.8	6.7	6.5	6.4	6.4	6.2	6.0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2	6.8	6.6	6.0	5.7	6.5	5.6	5.0	4.7	6.2
	소매판매(전년동기비)	9.0	9.8	9.0	9.0	8.3	8.3	8.5	7.6	7.2	8.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1	2.2	1.8	2.3	2.2	1.8	2.6	2.9	3.8	4.5
일본	실질GDP(전기비)	0.3	-0.5	0.5	-0.6	0.3	0.6	0.5	0.4	-	-
	산업생산(전기비)	1.0	-0.9	0.8	-0.7	1.3	-2.5	0.7	-0.5	-4.5	-0.9
	소매판매(전기비)	1.7	-0.4	0.5	0.9	0.7	-1.3	0.4	3.2	-14.2	4.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0	1.3	0.7	1.1	0.8	0.3	0.8	0.3	0.2	0.5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1.9	0.3	0.3	0.2	0.3	0.4	0.2	0.2	-	-
	산업생산(전기비)	0.9	-1.0	0.1	0.0	-1.0	0.4	-0.7	-0.8	-0.9	0.2
	소매판매(전기비)	1.6	0.2	0.9	0.0	0.6	0.9	0.6	0.5	-0.3	1.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3	1.7	2.1	1.9	1.4	1.4	1.0	0.7	1.0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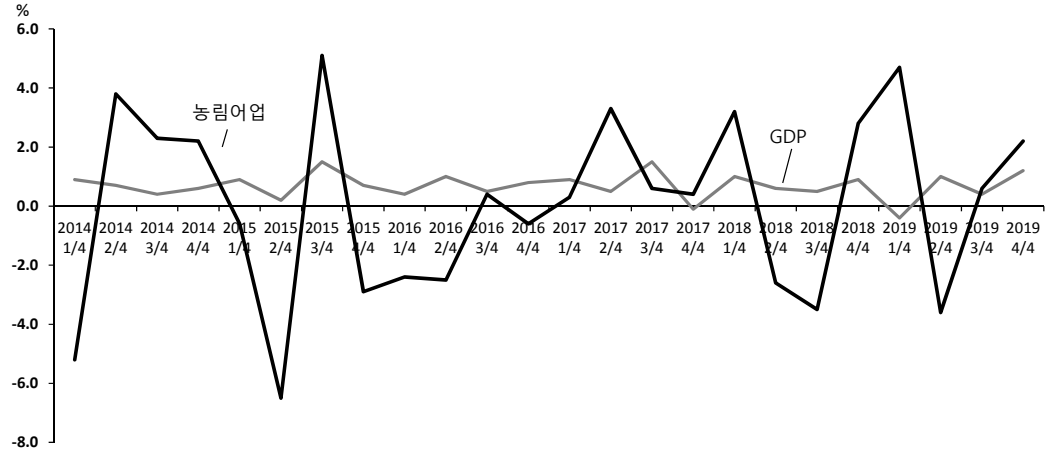
- 중국 경제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이 상승한 가운데, 1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함.
- 일본 경제는 양호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나, 10월 소비세 인상 이후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유로존 경제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 PMI도 소폭 하락하였음.

Ⅱ. 농촌경제 동향[1)]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19년 4/4분기 8조 4,0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전기 대비 2.2% 증가함.
  - 2019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67조 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1.2% 증가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1)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8년과 2019년 4/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 서홍석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9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7.9로 전년 동기 대비 1.2% 하락하였으며, 전기 대비 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살펴보면,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곡물, 청과물은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1.0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하고, 전기 대비 7.7% 상승함.
  - 서류는 고구마, 감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0%, 41.9% 하락하면서 27.1% 하락함.
  - 두류/잡곡은 옥수수, 콩, 팥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2.8%, 10.1% 상승하였으나 검정콩의 하락폭이 커(△30.3%) 전년 동기 대비 7.4% 하락함.
  - 미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한 반면, 맥류는 쌀보리, 맥주보리 가격 하락으로 22.5% 하락함.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9.5로 전년 동기 대비 1.6%, 전기 대비 25.8% 상승함.
  - 엽채류는 늦은 태풍영향으로 배추, 양배추 등 모든 엽채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0%, 전기 대비 26.5% 상승함.
  - 근채류는 태풍영향에 따른 무 가을 작형 가격 상승(전분기 대비 109.0%)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1%, 전기 대비 90.7% 상승함.
  - 조미채소류는 풋고추를 제외한 건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38.7%, 9.0%, 26.1%, 27.6%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2%, 전기 대비 1.1% 하락함.
  - 과채류는 오이, 메론을 제외한 호박, 가지,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여 2.4% 하락함.

- 과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8.2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전기 대비 15.2% 하락함.
  - 매실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상승하였으나 주요 과실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가격은 각각 18.7%, 9.3%, 21.9%, 22.9%, 18.9%, 8.0%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17	2018			2019			등락률(%)	
		연간	연간	3/4	4/4	연간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7.6	108.5	107.6	109.2	109.1	101.5	107.9	-1.2	6.3
곡물	280.1	94.5	118.2	112.8	121.4	122.4	112.4	121.0	-0.3	7.7
-미곡	234.3	86.5	112.2	114.1	120.3	122.8	121.3	126.5	5.2	4.3
-맥류	5.5	95.0	93.4	85.3	94.5	96.4	85.7	73.2	-22.5	-14.6
-두류/잡곡	23.9	129.7	138.0	117.8	144.1	147.3	107.0	133.5	-7.4	24.8
-서류	16.4	105.3	148.3	107.8	109.2	93.4	61.3	79.6	-27.1	29.9
청과물	406.5	121.8	118.2	116.8	116.9	117.0	102.8	111.5	-4.6	8.5
-채소	268.9	107.6	110.9	115.0	117.6	101.6	95.0	119.5	1.6	25.8
-과수	137.6	145.4	130.3	120.0	115.7	142.5	115.8	98.2	-15.1	-15.2
축산물	252.6	105.8	97.1	101.2	98.7	97.4	97.4	99.1	0.4	1.7
-가축	185.1	101.2	101.6	106.2	102.6	101.0	100.8	99.7	-2.8	-1.1
-기타	67.5	113.7	89.4	92.5	91.8	91.0	91.4	97.9	6.6	7.1
기타농산물	60.8	96.7	101.9	93.7	100.9	102.3	91.6	104.5	3.6	14.1
-특용작물	42.4	92.9	94.3	96.9	94.8	98.3	98.3	98.4	3.8	0.1
-화훼	15.3	101.8	115.3	88.9	110.3	108.7	79.6	114.2	3.5	43.5
-부산물	3.0	109.2	93.1	88.4	107.0	103.5	102.4	107.0	0.0	4.5

자료: 통계청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9.1로 전년 동기 대비 0.4%, 전기 대비 1.7% 상승함.
  - 한우 암·수소와 한우 수송아지, 육우송아지, 젖소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육우, 한우 암송아지, 돼지(성돈, 자돈), 육계, 오리는 하락함.

- 기타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4.5로 전년 동기 대비 3.6%, 전기 대비 14.1% 상승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9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4.7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전기 대비 0.4% 상승함.

- 재료비 지수는 96.4로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 전기와는 동일한 수준임.
  - 비료비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이나 영농자재비, 종자종묘, 농약비, 사료비가 각각 3.7%, 4.6%, 1.6%, 5.4%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임.

- 노무비 지수는 120.8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하고, 경비는 109.4로 1.6% 상승하였으나 자산구입비는 111.0%로 1.0% 하락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7	2018			2019			등락률(%)	
		연간	연간	3/4	4/4	연간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0.9	102.5	102.7	103.4	104.1	104.3	104.7	1.3	0.4
가계용품	484.8	103.3	104.6	105.0	104.9	104.9	104.9	105.2	0.3	0.3
농업투입재가격	389.0	96.3	98.3	98.6	99.2	100.8	101.6	101.5	2.3	-0.1
재료비	250.6	93.2	92.7	92.6	92.6	95.6	96.4	96.4	4.1	0.0
-종자종묘	27.5	100.6	107.7	107.7	107.6	112.6	112.6	112.6	4.6	0.0
-비료비	39.0	75.2	72.6	72.6	72.6	72.6	72.6	72.6	0.0	0.0
-농약비	29.3	96.9	95.3	95.3	95.3	96.8	96.8	96.8	1.6	0.0
-사료비	136.0	95.4	94.4	94.4	94.4	98.2	99.5	99.5	5.4	0.0
-영농자재비	18.7	98.3	95.9	95.0	95.0	97.7	98.5	98.5	3.7	0.0
노무비	45.0	108.8	114.8	116.0	117.0	119.6	120.6	120.8	3.2	0.2
경비	129.0	98.0	102.7	102.4	107.7	106.6	106.5	109.4	1.6	2.7
-영농광열비	32.6	94.1	108.4	110.6	116.2	107.7	109.4	109.5	-5.8	0.1
-임차료	40.5	97.5	101.3	99.3	108.7	109.8	109.6	111.6	2.7	1.8
-농작업위탁비	42.5	102.0	101.7	100.9	103.9	105.5	103.9	110.3	6.2	6.2
-판매자재비	13.3	96.5	96.5	96.5	96.5	97.6	98.2	99.1	2.7	0.9
자산구입비	90.6	109.4	111.6	111.5	112.1	112.4	112.5	111.0	-1.0	-1.3
-기계구입	58.9	101.3	104.2	104.2	104.1	104.6	104.9	104.0	-0.1	-0.9
-가축구입비	31.7	124.4	125.2	125.2	126.9	126.9	126.5	123.9	-2.4	-2.1

주 1)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자료: 통계청

- 기계구입비는 104.0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전기 대비 0.9% 하락하였으며, 가축구입비는 123.9로 전년 동기 대비 2.4%, 전기 대비 2.1% 하락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9년 4/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한 101.5임.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19년 4/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3.1로 전년 동기 대비 2.4% 악화되었으며, 전기 보다는 5.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3% 상승했기 때문임.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18			2019			등락률(%)	
	연간	3/4	4/4	연간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08.5	107.6	109.2	102.5	101.5	107.9	-1.2	6.3
농가구입가격지수(B)	102.5	102.7	103.4	104.1	104.3	104.7	1.3	0.4
농가교역조건지(A/B×100)	105.9	104.8	105.6	105.9	97.3	103.1	-2.4	5.9
농가경영조건	110.3	109.1	110.1	110.3	99.9	106.3	-3.4	6.4

3. 농림어업 취업자

- 2019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전분기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42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전분기 대비 2.4% 증가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전체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84만 명, 여성 수는 0.4% 증가한 57만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172만 4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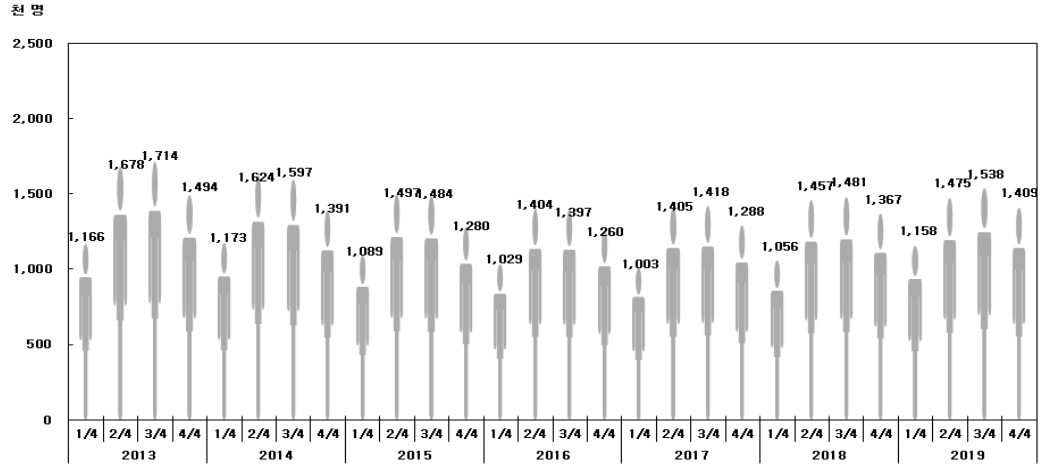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18			2019			증감률(%)	
		연간	3/4	4/4	연간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6,822	27,015	26,971	27,123	27,382	27,393	1.6	0.0
	(계절조정)	26,822	26,771	26,883	27,122	27,135	27,301	1.6	0.6
	농림어업	1,340	1,481	1,367	1,395	1,538	1,409	3.1	-8.4
	(계절조정)	1,342	1,339	1,382	1,402	1,392	1,425	3.1	2.4
	– 남성	796	864	799	831	890	840	5.1	-5.6
	– 여성	544	617	568	565	648	570	0.4	-12.0
	농가	1,646	1,774	1,684	1,698	1,813	1,724	2.4	-4.9
	- 농가남성	932	983	941	965	1,010	981	4.3	-2.9
	- 농가여성	714	791	743	733	802	743	0.0	-7.4

주: (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9년 1/4분기 115만 8천 명, 2/4분기 147만 5천 명, 3/4분기 153만 8천 명, 4/4분기 140만 9천 명으로 증가세를 보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19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0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함.
  - 곡류는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하였으나 과실류와 채소류는 각각 9.5%, 13.9%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은 3.5% 증가함.
  - 축산물은 포유육류, 가금육류, 낙농품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 3.3%, 0.1%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54.8%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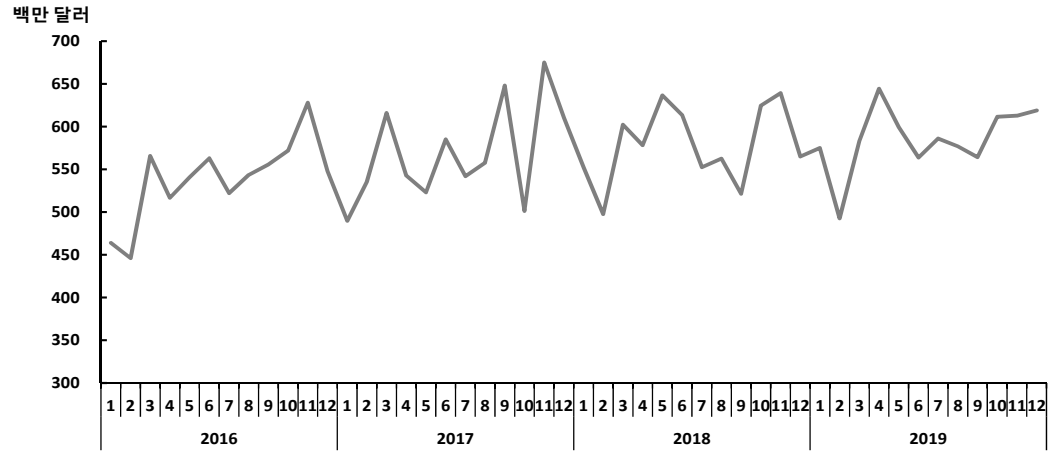
구 분	2018				2019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4		4/4		3/4		4/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52	1,636	1,173	1,829	1,049	1,727	1,020	1,844	-13.1	0.8
농산물	748	1,391	793	1,550	842	1,505	821	1,621	3.5	4.6
-곡류	13	7	14	12	12	8	13	8	-11.9	-26.8
-과실류	27	69	44	120	30	91	49	134	9.5	12.3
-채소류	29	80	31	99	65	102	35	105	13.9	5.6
축산물	28	104	36	118	41	117	43	119	19.4	0.9
-포유육류	0	2	0	3	1	3	0	3	6.9	-17.1
-가금육류	8	10	11	15	13	16	12	16	3.3	7.7
-낙농품	9	38	10	45	10	40	10	41	0.1	-10.2
임산물	276	141	344	161	166	106	155	104	-54.8	-35.4
수 산 물	140	564	191	617	151	579	182	665	-4.7	7.8
전 체	1,192	2,201	1,365	2,446	1,200	2,306	1,202	2,509	-11.9	2.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4/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8억 4,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곡류는 전년 동기 대비 26.8% 감소하였으나 과실류, 채소류가 각각 12.3%, 5.6% 증가하여 4.6% 증가함.
  - 축산물의 경우, 포유육류와 낙농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1%, 10.2% 감소하였으나 가금육류가 7.7% 증가하여 0.9% 증가함.

- 2019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6억 1,904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전월 대비 1.0%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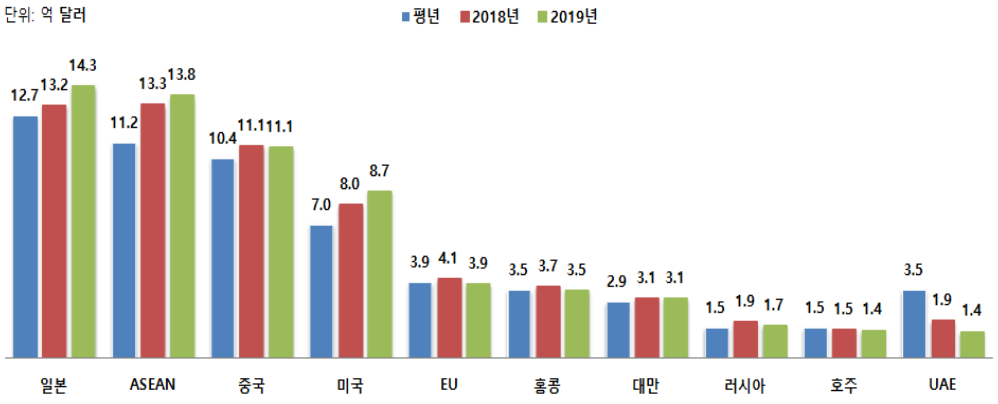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전체 농축산물 누적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70억 3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2.6% 증가한 41억 3천만 달러임.
  - 주요 수출대상국 중 일본, ASEAN, 미국 등의 누적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 그중 對일본 누적수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함.

- 2020년 1/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92.8로 수출경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 항목별로는 수출상담(111.8), 수출계약(110.7)은 개선되나 수출상품 제조원가(85.6), 수출국 경기(86.1) 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2)]
  - 주요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상승(20.9%),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15.1%)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19년 4분기」.

4.2. 수입 동향

- 2019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98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2.2%, 12.7% 감소함.

2) 한국무역협회, '2020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9.12.26).

- 2019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8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함.
  - 농산물과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21.8% 감소하였으나 축산물은 0.6% 증가함.
  - 농산물 중 곡류는 쌀, 보리, 밀은 감소하였으나 호밀, 옥수수, 메밀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였으나 과실류는 사과, 복숭아, 프룬, 버찌, 나무딸기, 키위 등 수입액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함. 채소류는 늦은 태풍 영향에 따른 가을작형의 국내 생산량 감소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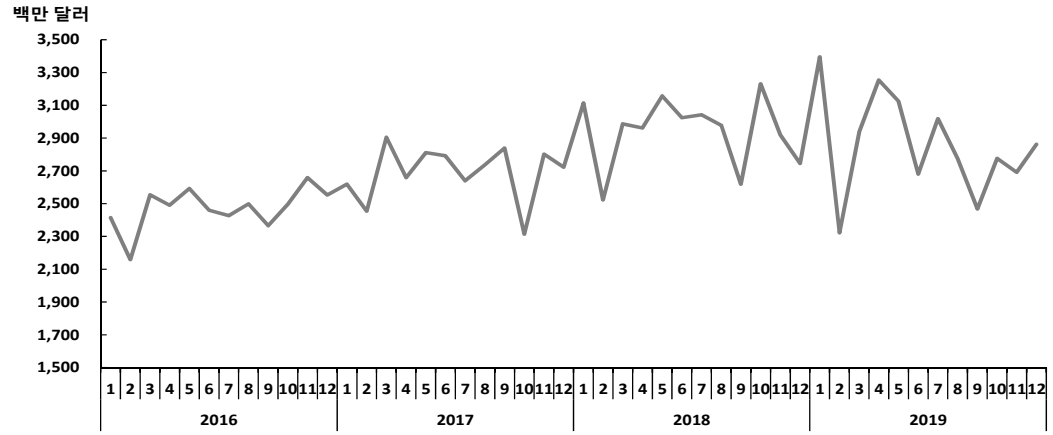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8				2019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4		4/4		3/4		4/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069	8,638	14,289	8,896	12,832	8,260	13,982	8,330	-2.1	-6.4
농 산 물	7,993	4,735	8,944	5,120	8,433	4,659	9,273	4,977	3.7	-2.8
-곡류	3,397	845	3,855	960	3,701	855	4,330	968	12.3	0.9
-과실류	260	446	265	419	267	397	265	389	-0.3	-7.1
-채소류	297	253	329	253	289	233	341	255	3.8	1.1
축 산 물	432	1,955	423	1,782	451	2,067	414	1,793	-2.2	0.6
-포유육류	269	1,253	257	1,131	263	1,278	232	1,104	-9.4	-2.4
-가금육류	39	94	46	118	46	122	48	127	3.3	7.3
-낙농품	77	250	68	231	88	289	75	251	10.2	8.9
임 산 물	4,644	1,949	4,922	1,994	3,948	1,534	4,295	1,560	-12.7	-21.8
수 산 물	1,406	1,369	1,970	1,736	1,244	1,387	1,676	1,552	-14.9	-10.6
전 체	14,476	10,008	16,259	10,631	14,076	9,647	15,659	9,881	-3.7	-7.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8억 6,14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2%, 전월 대비 6.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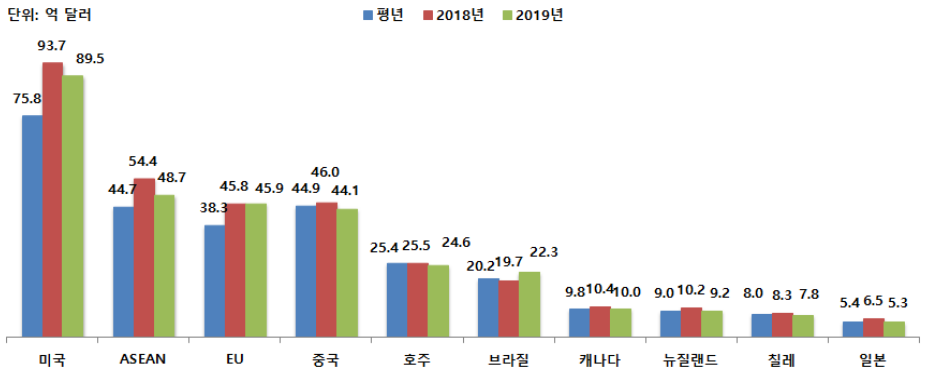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전체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343억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누적수입액도 4.8% 감소한 289억 달러임.
  - 주요 수입국 중 EU, 브라질을 제외한 미국, ASEAN, 중국 등의 누적 수입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 중 ASEAN이 큰 폭(△5.7억 달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19년 4분기」.

4.3. 순수입 동향

- 2019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296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845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37만 1천 톤임.

- 2019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64억 9천만 달러임.
  - 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임산물은 각각 0.6%, 2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8년 4/4분기		2019년 4/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115	7,067	12,962	6,486	-1.2	-8.2
농 산 물	8,151	3,569	8,452	3,356	3.7	-6.0
축 산 물	387	1,664	371	1,674	-4.2	0.6
임 산 물	4,578	1,833	4,140	1,456	-9.6	-20.6
수 산 물	1,779	1,119	1,494	886	-16.0	-20.8
전 체	14,894	8,185	14,457	7,372	-2.9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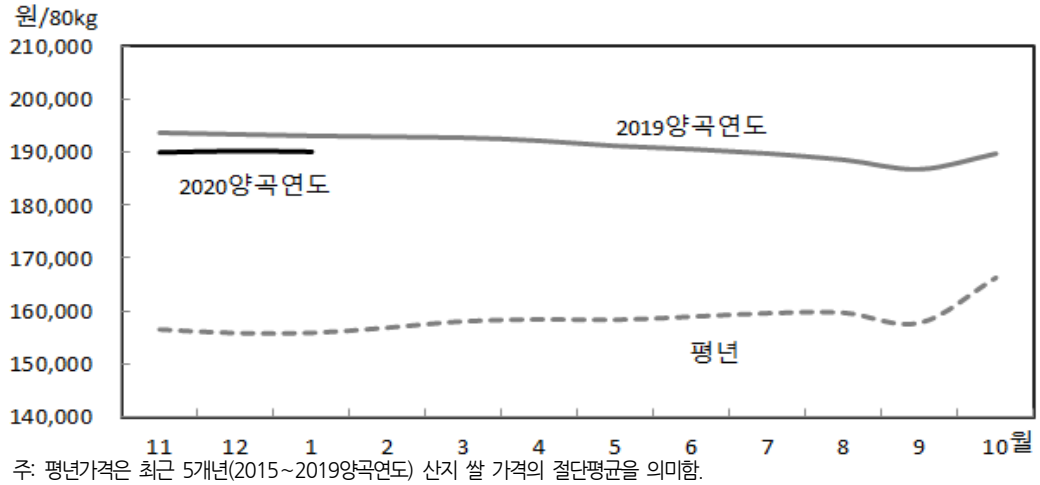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1)]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5~2019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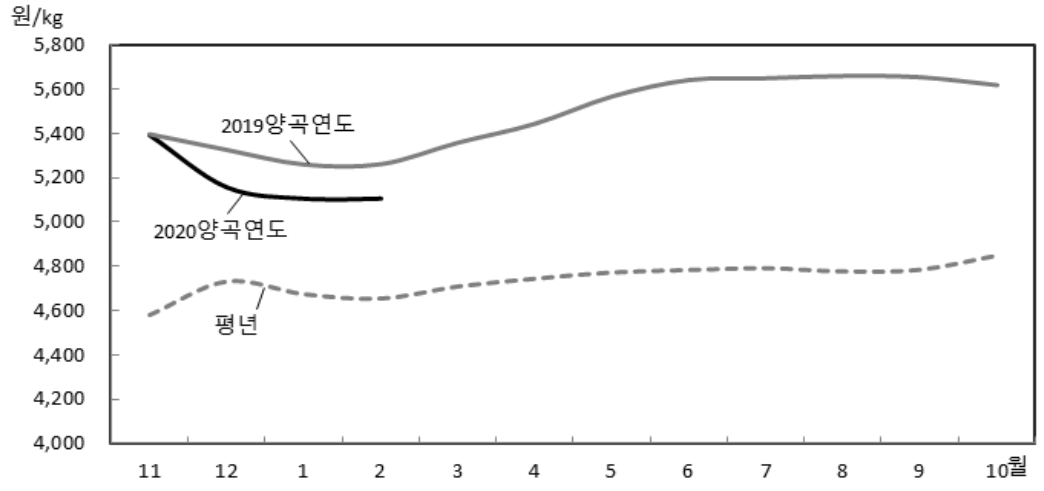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 약보합세가 지속되던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은 작황부진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11월부터 강보합세로 전환
  - 2019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쌀 가격은 전년산 역계절진폭 발생과 구곡 재고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9% 낮은 18만 9,964원/80kg 형성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성진 부연구위원(seongjin20@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gin@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강두현(kdh05@krei.re.kr), 안정욱(ahn0351@krei.re.kr), 김수연(sykim072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산지 평균 쌀 가격은 재고 부족에도 저가 원료곡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0.1%) 하락한 19만 88원/80kg 수준에 형성
    ※ 산지유통업체 재고량(1.31.기준)은 전년보다 2.1% 감소한 108만 6천 톤
  - 이후에도 재고량은 전년보다 적은 수준이나 쌀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재고 부담이 커진 일부 업체들이 조기 출하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1/4분기 산지 평균 쌀 가격은 현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1.2. 콩

국산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2015~2019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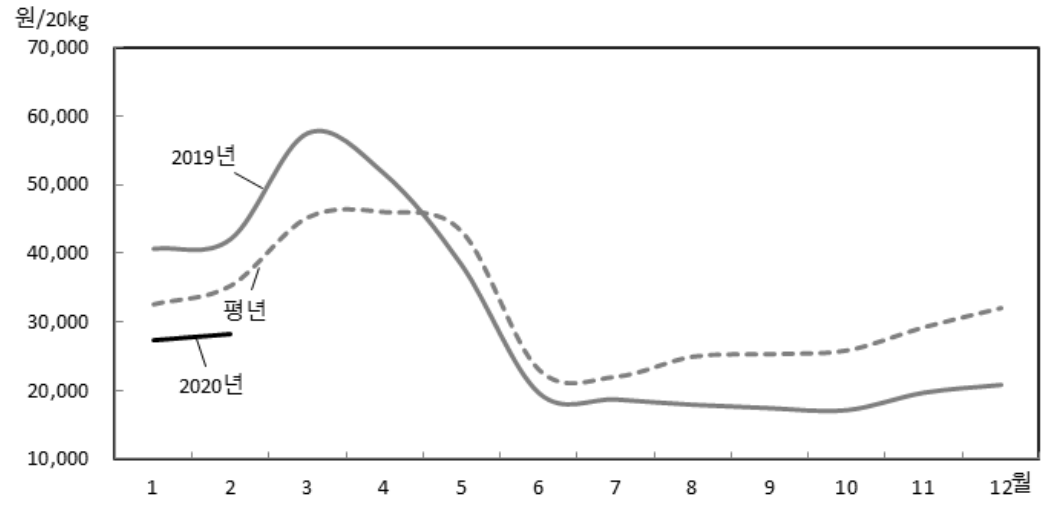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 2019년 4/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5,390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4.7% 하락

- 4/4분기 콩 가격은 2019년 생산량 증가 예상과 수요 관망세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하락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4분기 국산 콩 가격(백태 상품)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정부 수매물량 또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연간 시장공급물량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 전망
- 2019년산 콩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1만 6천 톤이 증가하였으나, 1월 말 기준 정부 수매량 또한 1만 6천여 톤 수준으로 생산량 증가에 의한 가격하락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예상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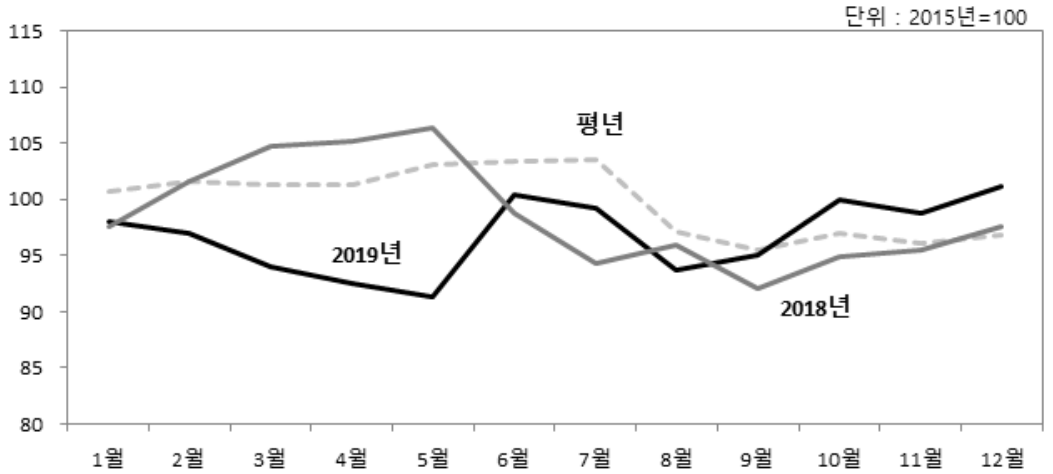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5~2019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수미(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19,145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3% 하락하였으나, 전 분기 대비 6.7% 상승
  - 4/4분기 감자(수미 상품) 가격은 가을감자 작황 부진 및 출하 저조 영향으로 전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노지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저장물량 출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 대비 약세 지속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4분기 감자 도매가격(수미 상품)은 노지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저장 감자 출하 증가로 전년 대비 약세 전망
  - 노지에 비해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감자 출하 영향으로 전기 대비 상승하겠으나, 시설감자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며, 저장감자 또한 평년 대비 두 배가량 많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가격은 2014~2018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9년 4/4분기 동향
  - 2019년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기 대비 4.2% 상승한 100.0임.
  -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문 발표가 4/4분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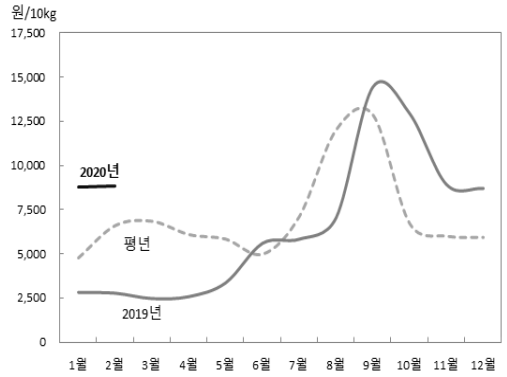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주요 밀 생산 국가의 공급 여건 악화와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 서명에 따른 콩과 옥수수의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2020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기 대비 2.8% 상승한 102.7로 전망됨.
  - 1월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2]는 -1.47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 단계가 전망됨.

2)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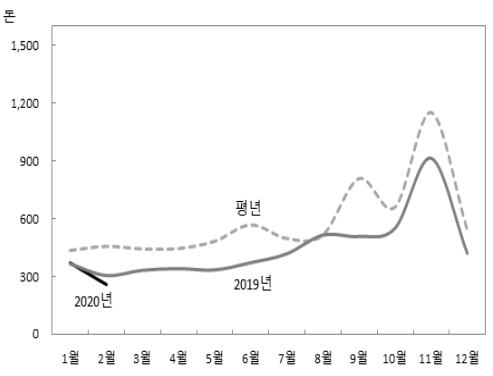
2. 엽근채소[3)]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10,190원/10kg
  - 4/4분기 가격은 가을 및 겨울배추 재배면적 감소와 세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크게 상승
    * 2019년 가격: (10월) 12,930원/10kg, (11월) 8,920원, (12월) 8,710원
    * 4/4분기 가격: (2019년) 10,190원/10kg, (2018년) 4,830원, (평년) 6,210원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산 겨울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6%, 5% 적은 32만 3천 톤 내외 전망
    *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2%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3% 증가한 4,158ha
    * 단수는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6%, 8% 감소한 7,771kg/1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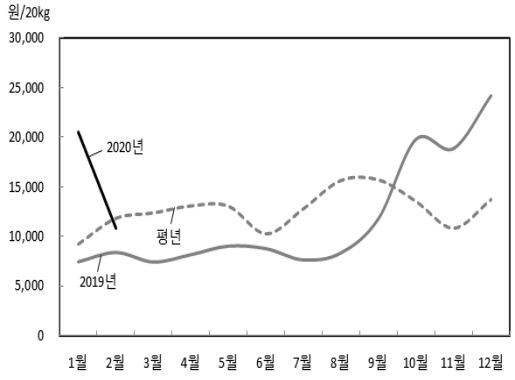
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한은수(hanes012@ 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박수은(pse548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1/4분기 배추 출하량은 겨울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0%, 11% 적을 전망
- 1/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2,700원/10kg) 및 평년(6,070원)보다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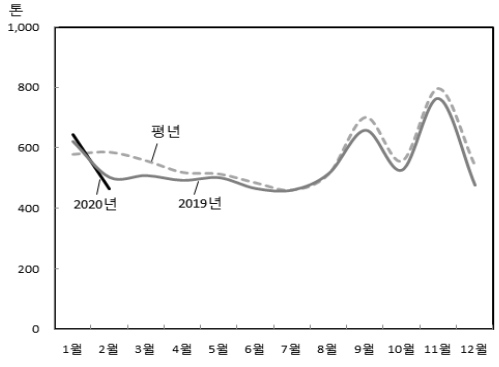
• 2020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
- 2020년 시설봄배추 재배의향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5%, 10% 내외 증가한 504ha 전망
  * 겨울배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출하기(4월 중순) 가격 상승 기대로 주산지인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전망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20,960원/20kg
- 4/4분기 가격은 3차례 태풍피해에 따른 가을 및 월동무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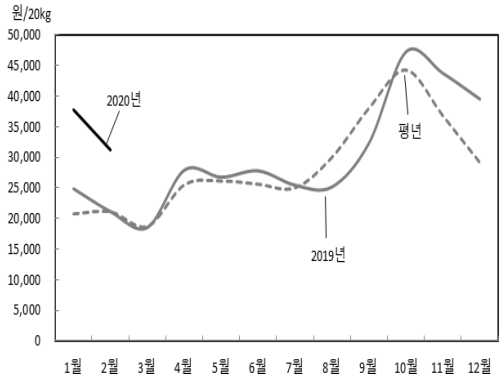
* 2019년 가격: (10월) 19,810원/20kg, (11월) 18,870원, (12월) 24,200원
* 4/4분기 가격: (2019년) 20,960원/20kg, (2018년) 8,600원, (평년) 8,730원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산 월동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1%, 16% 감소한 28만 톤 전망
    *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1%, 14% 감소한 5,094ha
    * 단수는 전년과 비슷하나, 평년보다는 3% 감소한 5,587kg/10a
    * 태풍피해로 초기 월동무 생육은 부진하였으나, 12월 이후 기상이 호전되면서 후기 월동무 작황은 회복된 것으로 조사
  - 1/4분기 무 출하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7%, 13% 내외 적을 전망
  - 1/4분기 무 도매가격은 전년(7,750원/20kg)보다 높으나, 월동무 출하가 2월부터 집중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평년(11,200원)보다는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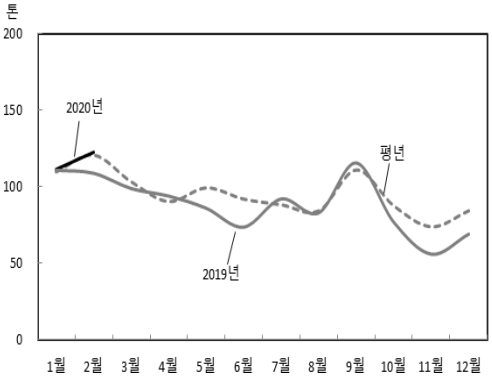
- 2020년 봄무 재배의향면적
  - 2020년 시설봄무 재배의향은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던 전년보다 56% 내외 증가하고, 평년보다도 4% 내외 증가한 159ha 전망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비슷하나, 평년보다는 높은 43,500원/20kg
  - 4/4분기 가격은 겨울당근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
    * 2019년 가격: (10월) 47,250원/20kg, (11월) 43,740원, (12월) 39,520원
    * 4/4분기 가격: (2019년) 43,500원/20kg, (2018년) 43,000원, (평년) 30,1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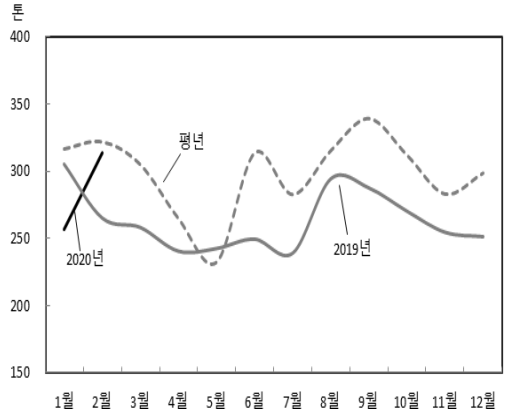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산 겨울당근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0%, 27% 감소한 3만 8천 톤 전망
    *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7%, 14% 감소한 1,234ha
    * 단수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4%, 15% 감소한 3,061kg/10a
  - 1/4분기 당근 출하량은 겨울당근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21% 감소 전망
  - 1/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전년(21,500원/20kg)과 평년(20,190원)보다 높을 전망

- 2020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
  - 2020년 시설봄당근 재배의향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11% 증가한 623ha로 전망
    * 재배의향면적은 겨울당근 출하량 감소에 따른 출하기 가격 상승 기대로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하겠으며, 11월에 조기 파종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5~2019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8,230원/8kg
  - 4/4분기 가격은 가을 및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수준
    * 2019년 가격: (10월) 6,400/8kg, (11월) 8,160원, (12월) 10,120원
    * 4/4분기 가격: (2019년) 8,230원/8kg, (2018년) 6,120원, (평년) 5,580원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3%, 4% 감소한 15만 9천 톤 전망

  *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5%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4% 증가한 3,141ha

  * 단수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9%, 8% 감소한 5,071kg/10a

- 1/4분기 양배추 출하량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14% 감소 전망

- 1/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전년(3,690원/8kg)과 평년(5,720원)보다 높을 전망

• 2020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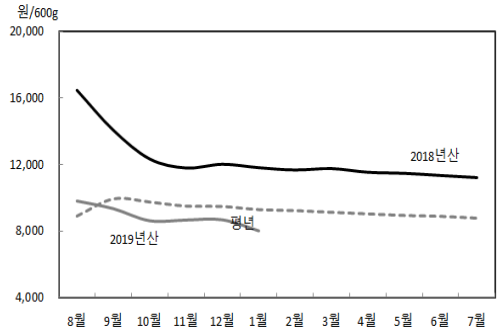
- 2020년 시설봄양배추 재배의향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9%, 2% 증가한 520ha로 전망

  * 재배의향면적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에 따른 출하기 가격 상승 기대로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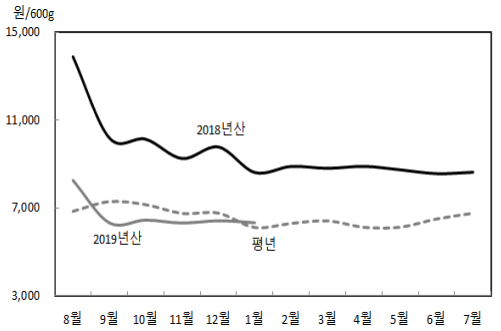
3. 양념채소[4)]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4년 8월~2019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9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건고추 도매 및 산지가격(화건, 600g기준)은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34% 하락
    * 도매가격: (금년) 8,643원/600g, (전년) 12,043원, (평년) 8,643원
    * 산지가격: (금년) 6,389원/600g, (전년) 9,717원, (평년) 6,902원
  -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4/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1,657톤)보다 9% 많은 1,805톤

- 2019년산 건고추 생산 동향
  -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78,437톤으로 전년 대비 10% 많으나 평년보단 2.8% 적은 수준
    *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만 1,644ha
    * 단수는 전년과 동일한 248kg/10a

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원태 전문연구원(wtkim@krei.re.kr), 신성철 (ssc0729@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양진석(mozz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

단위: ha, kg/10a,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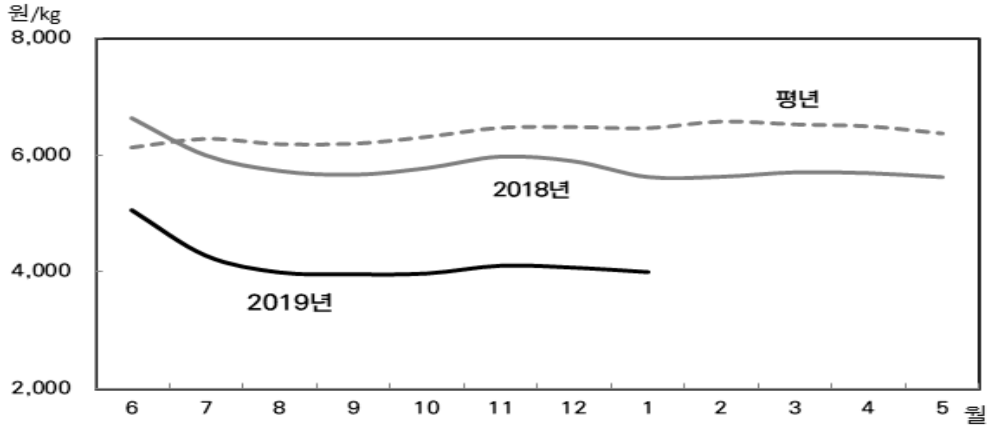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9	31,644	248	78,437
2018	28,824	248	71,509
평년	31,840	253	80,677
증감률	9.8	0.0	9.7
	-0.6	-2.0	-2.8

자료: 통계청.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건고추 도매 및 산지 가격(화건, 상품 600g)은 전년보다 각각 32%, 27% 낮은 8,002원, 6,322원
  - 1/4분기 건고추 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전년 동기(11,741원/600g)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3.2. 마 늘

깐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4년 6월~2019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깐마늘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19년산 저장마늘 출고량 증가로 전년보다 31% 낮은 수준
    * 4/4분기 평균 도매가격: (금년) 4,051원/kg, (전년) 5,888원, (평년) 6,426원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1월 깐마늘 가격은 2019년산 출고량 많아 전년과 전월보다 29%, 2% 낮은 수준
    * 1월 도매가격: (금년) 3,997원/kg, (전년) 5,630원, (평년) 6,466원
  - 2020년 1/4분기 마늘 도매가격은 2019년산 저장마늘의 높은 부패율에 따른 출고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 2019년 12월 말 기준, 마늘 재고량은 약 5만 톤
  - 2019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1% 많은 10만 5천 톤 내외
  - 저장·가공업체 표본조사 결과, 12월 말 기준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적은 수준
    * 12월까지의 난지형 마늘 출고량은 전반적인 품질 저하로 저장업체의 출고의향이 높아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2%, 11% 많은 약 5만 톤 추정

2019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19	105,289	50,384	49,840
2018	84,574	41,225	50,088
평년	107,000	45,475	58,428
전년 대비	11.3	22.2	-0.5
평년 대비	-1.6	10.8	-14.7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9년산 9.2%, 2018년산 6.1%, 평년 5.0%)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 및 TRQ는 미포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12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치

-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 평년 대비 증가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12. 20.),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농가 수취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나, 평년 대비 2% 많은 2만 5천 ha 내외 추정

2020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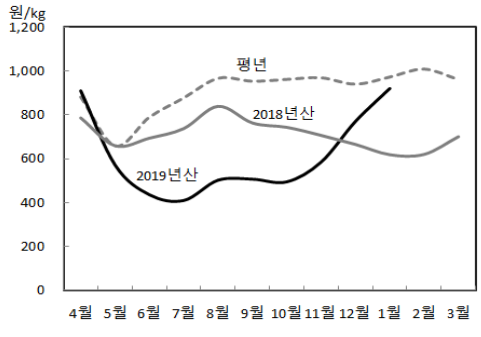
단위: ha, %

2020년산	2019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25,055	27,689	24,603	-9.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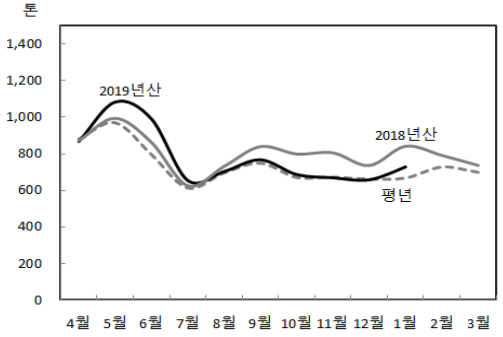
주: 2020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4년 4월~2019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국내산 양파 생산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3%, 36% 낮은 상품 kg당 620원
    * 4/4분기 월별 일평균 출하량: (10월) 687톤, (11월) 669톤, (12월) 657톤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부패율로 물량이 감소하고 저장업체가 출하를 조절하여 전년보다 54% 높은 960원
  - 2019년산 양파 생산량 증가로 입고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 15% 증가한 71만 2천 톤 내외로 추정
  - 12월 20일 기준, 출고량은 부패율 증가로 출고를 늘려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1% 많은 40만 8천 톤 내외로 추정
  - 감모율을 감안한 2019년산 양파 재고량은 평년보다 17% 많은 26만 톤 내외로 추정

2019년산 양파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19	711,890	407,853	259,343
2018	672,361	367,767	263,734
평년	620,244	366,598	221,581
전년 대비	5.9	10.9	-1.7
평년 대비	14.8	11.3	17.0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9년산 14.7%, 2018년산 13.4%, 평년 12.6%)을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12월 20일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20년산 양파 재배면적 평년 대비 감소 추정
  - 2020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9년산 수확기 양파 가격 하락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1%,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
  - 평년 단수를 적용하여 2020년산 양파 생산량을 추정할 경우 112만 톤 내외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0%, 15% 적을 전망

2020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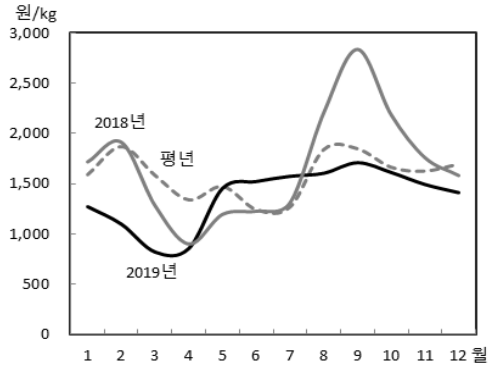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재배면적
2020	17,247
2019	21,777
평 년	20,404
전년 대비	-20.8
평년 대비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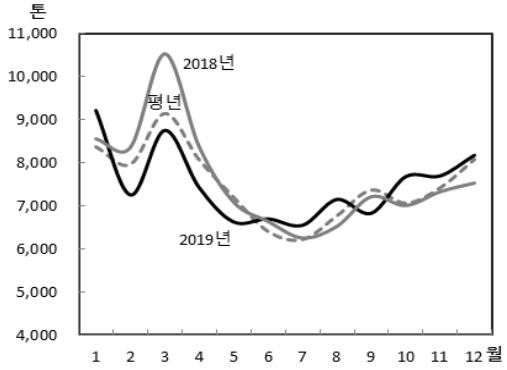
주: 2020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4년 1월~201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대파 4/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500원/kg(중품 1,150원/kg)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 10% 하락
    * (금년) 1,502원/kg, (전년) 1,843원, (평년) 1,662원
    * (10월) 1,608원/kg → (11월) 1,489원 → (12월) 1,408원
  - 10~12월 평균 반입량은 전년보다 3% 증가

- 4/4분기 가격은 기상 호조로 경기지역 노지대파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하락
- 2019년산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7% 증가
- 2019년산 겨울대파 작황은 생육기 가을장마로 부진했으나, 겨울철 기온이 따뜻하여 평년 수준까지 회복

* 전남지역 노지대파 재배면적: (금년) 3,268ha, (전년) 3,341ha, (평년) 3,058ha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기상 호조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1,720원/kg)보다 낮은 1,270원/kg
- 1/4분기는 겨울대파가 주로 출하되는 시기로 전남 신안, 진도 등에서 주 출하될 예정
- 출하대기면적은 겨울대파 가격 약세로 진도와 신안 모두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

2019년산 겨울대파 전년 대비 생육 상황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진도	23.7	60.5	15.8
신안	18.5	44.4	37.0
영광	5.6	83.3	11.1
기타	25.0	37.5	37.5
전체	15.9	57.7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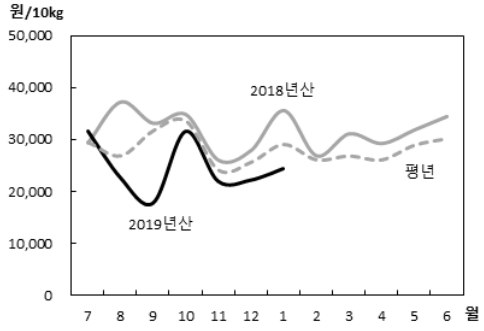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따라서 1/4분기 출하량은 겨울대파 출하대기면적이 많고, 향후 기온 상승으로 단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 1/4분기 가격은 겨울대파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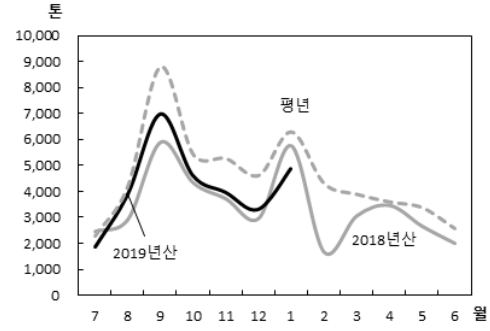
4. 과일[5)]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4~18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10월 양광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9%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1,600원이었음.
  - 11~12월 후지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8% 낮은 2만 2,000원이었음. 후지 저장량 증가로 반입량이 많았고, 색택 등 품질 저하로 가격 하락폭이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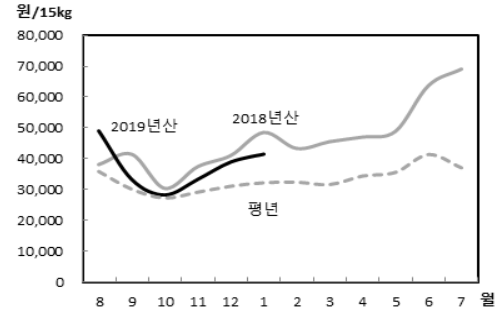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후지 도매가격은 설 성수기(1.11~1.24.) 사과 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 하락한 상품 10kg 상자에 2만 4,400원이었음.
  - 2월 이후 사과 출하량은 후지 저장량이 많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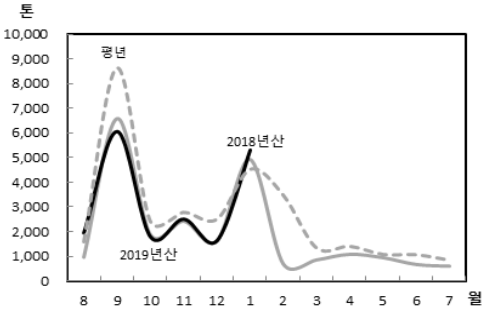
- 2020년 재배면적 전망
  -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3만 2,816ha로 전망됨. 성목 면적은 유목이 성목화되면서 2% 증가하지만, 유목면적은 품종 갱신에도 불구하고 신규개원이 적어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품종별로는 후지와 홍로가 전년 대비 각각 1%, 3% 감소하는 반면 감홍은 경북을 중심으로 8% 증가 전망. 기타품종 재배면적은 국내 육성품종인 썸머킹과 아리수, 착색관리가 필요 없는 시나노골드 위주 품종 전환이 많아 1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4~18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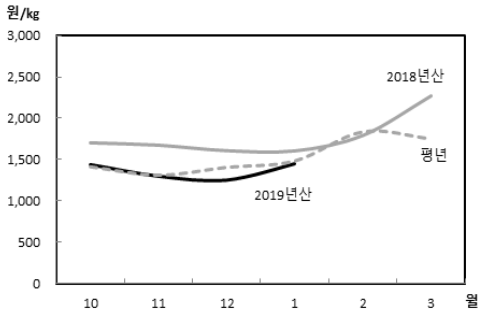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7%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3,600원이었음. 이는 생육 후기 양호한 기상으로 과 비대가 원활하여 전년보다 대과 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14% 하락한 상품 15kg 상자에 4만 1,600원이었음.
  - 2020년 설 성수기 배 출하량은 저장량이 많고 대과 저장 비율도 높아 전년보다 22% 증가하였음.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1.11~24) 신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상품 7.5kg 상자에 2만 3,500원이었음.
  - 2~3월 가격은 저장량 증가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약세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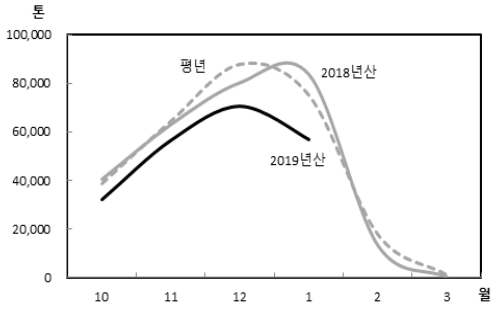
- 2020년 재배면적 전망
  - 2020년 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감소한 9,313ha로 전망됨. 산업단지 편입 및 도로 수용, 농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성목면적 감소세는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유목면적은 국내 육성 신품종 묘목 보급 사업을 통한 신규 과원 조성 및 품종 갱신(신화·창조·황금·그린시스 등)으로 전년 대비 8% 늘어날 전망임.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주: 평년은 2014~18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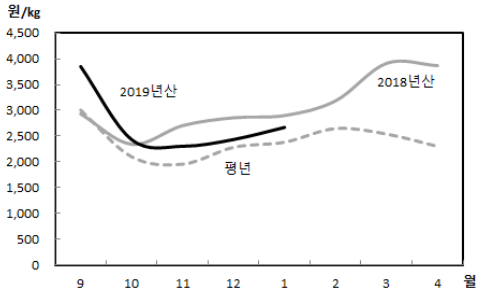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전년보다 20% 하락한 kg당 1,330원이었음.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도 등 전반적인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태풍과 잦은 강우 영향으로 중결점과(흠집과·상처과) 비율 증가·당도 저하 등 상품성이 낮아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품질 저하로 전년 대비 10% 낮은 kg당 1,440원이었음.
  - 2~3월 출하량은 생산량이 많지만, 산지 출하조절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가격은 출하량 감소에도 당도 등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전년 대비 약세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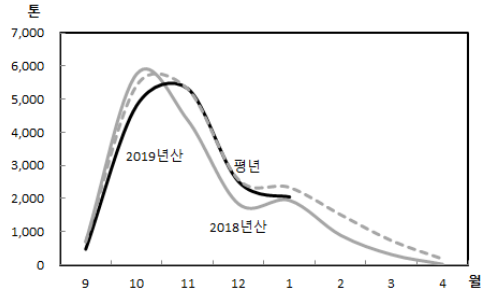
- 2020년 재배면적 전망
  - 2020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2만 1천 ha 수준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노지온주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반면, 월동온주와 하우스온주, 만감류는 각각 1%, 4%,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만감류 중 한라봉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하는 반면, 천혜향과 레드향, 기타 만감류(황금향, 카라향)는 지속적인 수요 확대로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4.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9월 서촌, 10~4월 부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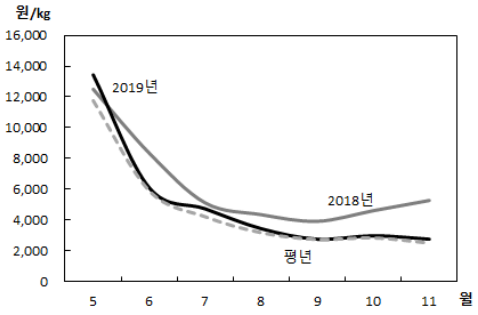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부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증가로 상품 10kg 상자에 2만 3,900원으로 전년보다 9% 낮았음. 반입량이 증가한 것은 단감 경도 저하로 농가들이 저장보다 시장 출하를 늘렸기 때문임.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8%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7천원이었음.
  - 1/4분기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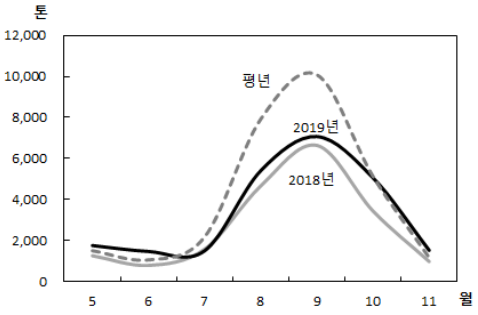
- 2020년 재배면적 전망
  - 2020년 단감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 감소한 8,495ha로 전망됨. 태추와 국내 육성 품종 신규 식재로 유목면적이 전년보다 2% 증가하나, 성목면적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4.5.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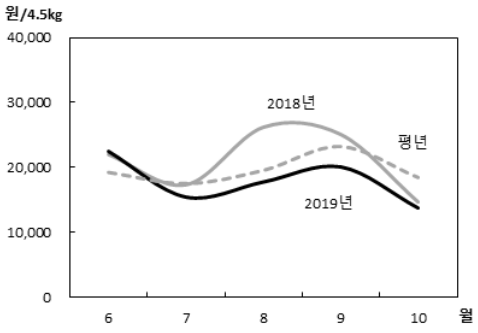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1월 캠벨얼리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10~11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증가로 상품 5kg 상자에 전년보다 42% 낮은 1만 4천 원이었음.
  - 10~11월 샤인머스켓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도 반입량 증가로 상품 2kg 상자에 2만 6,200원으로 전년보다 4%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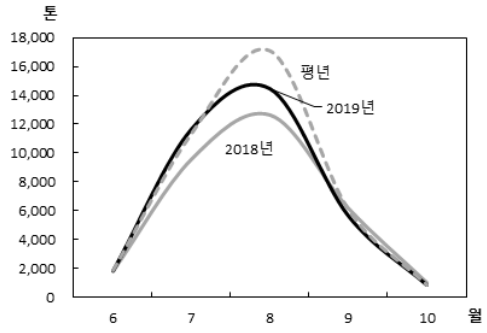
- 2020년 재배면적 전망
  - 2020년 포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 증가한 1만 2,968ha로 전망됨. 성목 면적은 4% 감소하나, 유목면적은 3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샤인머스켓 가격 강세로 기존 농가의 샤인머스켓 재배면적 확대와 신규 농가의 식재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됨.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4~18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10월 엘버트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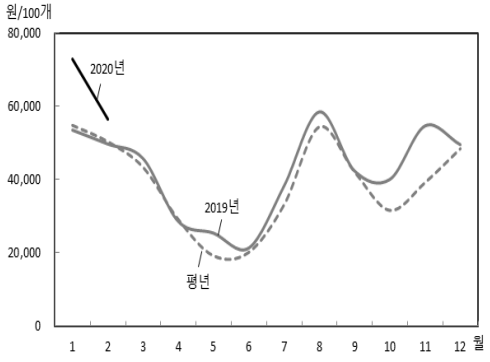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 10월 엘버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5% 낮은 상품 4.5kg 상자에 1만 3,800원이었음. 반입량이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지만, 생육 후기 잦은 비로 당도 등 상품성이 낮았기 때문임.

- 2020년 재배면적 전망
  - 올해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2만 411ha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성목화와 신규식재 감소로 전년보다 7% 줄고, 성목면적은 폐원과 작목전환 등의 영향으로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품종별로는 유모계가 전년보다 1% 감소할 전망임. 천도계는 최대 주산지인 경북 경산에서 포도로 작목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 2% 줄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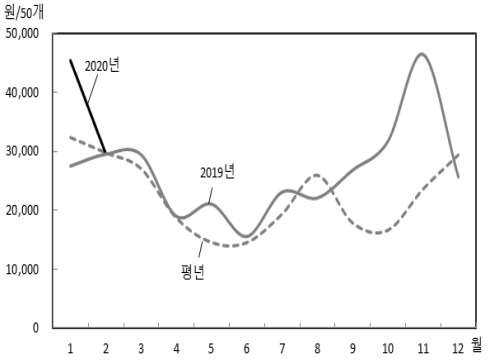
5. 과채[6)]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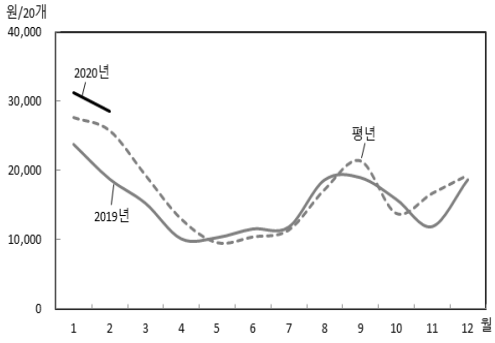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0월 4만 원, 11월 5만 4,600원, 12월 4만 9,5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4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상승하였음.
  - 4/4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에서 일조량 감소로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 동기보다 5% 감소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10월 3만 1,600원, 11월 4만 6,400원, 12월은 2만 5,6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3만 4,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 상승하였음.
  - 4/4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에서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하였음.

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이연옥(superiorl@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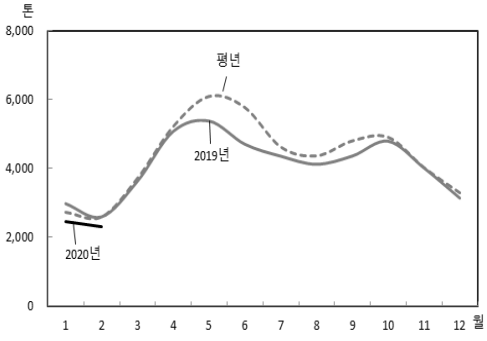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7% 높은 상품 100개에 7만 3,000원이었음. 이는 일조량 감소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3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경북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51% 높은 상품 50개에 4만 1,400원이었음. 이는 기온하락과 일조량 감소로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2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전남의 작황이 부진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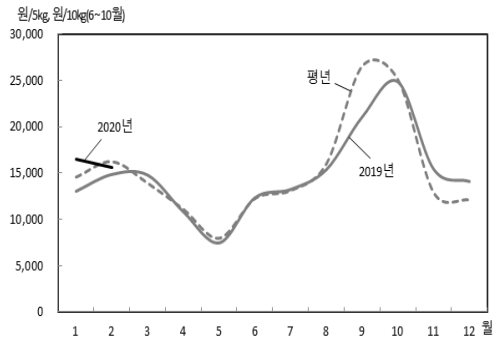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0월 1만 5,900원, 11월 1만 2,000원, 12월에는 1만 8,7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1만 5,500원으로 전년보다 16% 하락하였음.

– 4/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충북 청주와 경남 진주의 작황이 좋아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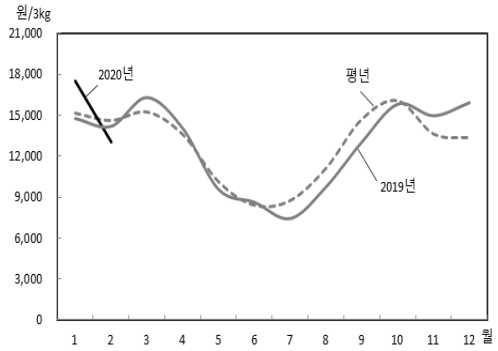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2% 높은 상품 20개에 3만 1,300원이었음. 이는 1월 기온하락과 일조량 감소로 수정이 불량하여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3월 애호박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경남 진주에서 일조량 감소로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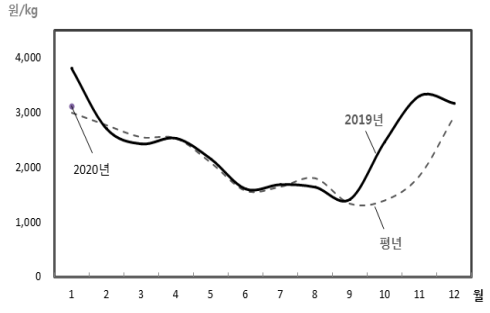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0월 1만 7,100원, 11월 1만 5,400원, 12월 1만 4,1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7% 낮은 1만 5,500원이었음.

- 4/4분기 일반토마토 반입량은 강원·경기·영남지역의 출하면적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였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3kg 상자에 10월 1만 5,800원, 11월 1만 5,000원, 12월 1만 5,900원이었음. 4/4분기 1만 5,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낮았음.
- 이는 기존 및 신규 농가의 시설면적 확대와 타 작목에서 전환한 농가가 늘어 반입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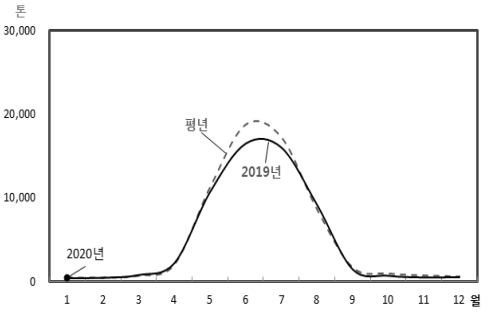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6%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6,500원이었음.
- 2~3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지역개발 및 작목 전환 등으로 인한 재배 규모 축소와 작황 부진으로 출하를 일찍 종료하려는 농가가 늘어 전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됨.
- 1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19% 상승한 상품 3kg 상자에 1만 7,500원이었음.
- 2~3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여름철 작황 부진으로 12월에 재정식한 농가의 출하와 타 작목에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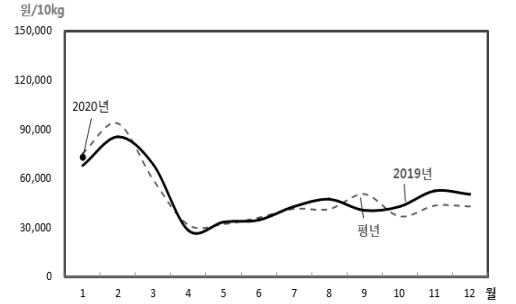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0월 2,470원, 11월 3,300원, 12월 3,16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45% 높은 2,980원이었음.
  - 수박 4/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하였음. 이는 경남지역의 정식면적 증가로 12월 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호남·충청지역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 10~11월 반입량 감소폭이 컸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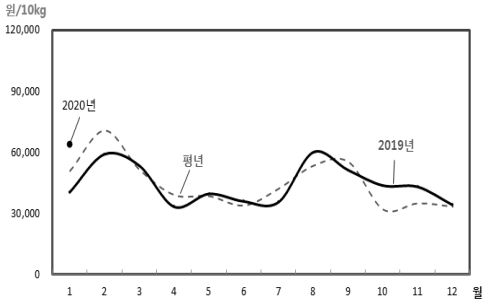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18% 낮은 상품 1kg에 3,110원이었음. 이는 이른 설로 인해 출하시기가 앞당겨져 반입량이 16% 증가하였기 때문임.
  - 2월 수박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하나, 3월은 경남지역에서 정식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5.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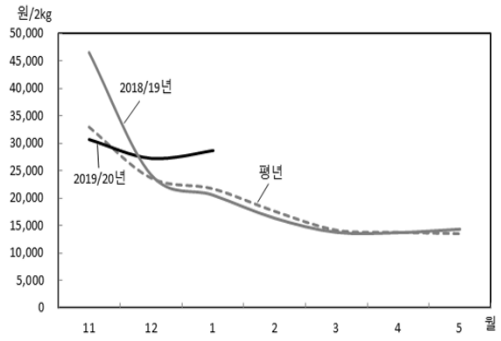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5~2019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4만 2,900원, 11월 5만 2,500원, 12월 5만 3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23% 높은 4만 8,600원이었음.
  - 일반풋고추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4만 3,700원, 11월 4만 3,100원, 12월 3만 4,2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42% 높은 4만 300원이었음.
  - 청양계풋고추와 일반풋고추 4/4분기 반입량은 폭염피해로 작황이 부진하였던 전년보다 단수가 증가하여 각각 8%, 7% 많았고, 전년에 비해 품위가 좋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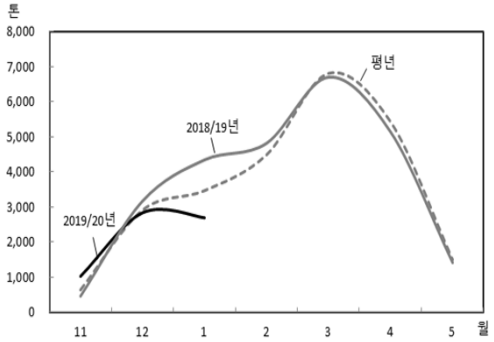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7%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7만 2,700원이었고,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59%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6만 4,000원이었음. 이는 주 출하지인 경남지역의 일조시간 부족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3월 청양계풋고추와 일반풋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경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6.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딸기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과거 5개년의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4/4분기 동향
  - 딸기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0월 3만 9,500원, 11월 3만 800원, 12월 2만 7,3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3만 2,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낮았음.
  - 딸기 4/4분기 반입량은 정식 및 생육 지연으로 출하면적 감소폭이 컸던 전년 동기보다 8% 많았음.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딸기 도매가격은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높은 상품 2kg 상자에 2만 8,700원이었음.
  - 2~3월 딸기 출하량은 일조시간 부족으로 기형과 발생이 증가하고, 착과율이 저조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7)]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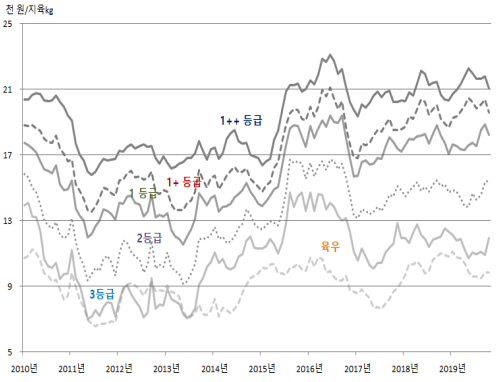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18년		19년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p)
사육 농장수	97	97	96	95	94	94
총 마릿수	3,168	3,113	3,059	3,242	3,268	3,211
가임 암소	1,439	1,434	1,402	1,426	1,480	1,489

주: 2019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육우) 2019년 4/4분기 동향
  -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9월(326만 9천 마리)보다 1.8% 감소한 321만 1천 마리였음(전년 동월 311만 3천 마리보다 2.8% 증가).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305만 5천 마리, 육우 15만 6천 마리
    * 가임암소 마릿수 148만 9천 마리(전년 동월 143만 4천 마리 보다 3.8% 증가)
  - 4/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기 18,308원/지육kg보다 비슷한 18,247원이었음(전년 동기 17,625원보다 3.5% 상승).

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김명수(kms86@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서강철(softvalue@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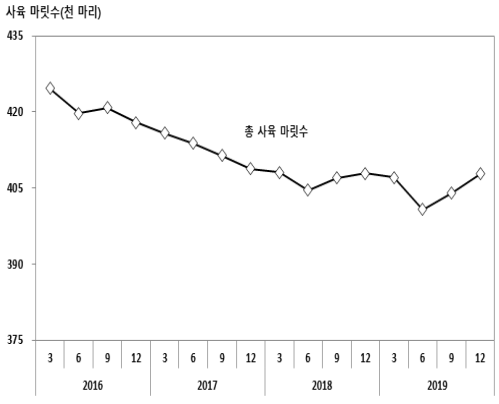
- (한우)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3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290만 8천 마리)보다 4.7% 증가한 304만 7천 마리로 전망됨.
  - 1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8,000~18,500원으로 전망됨.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19년(A)	2019년	2020년(B)	B/A
사육 마릿수	3월 290만 8천 마리	12월 305만 5천 마리	3월 304만 7천 마리	4.7%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1분기 17,654원	4분기 17,538원	1분기 18,000~18,5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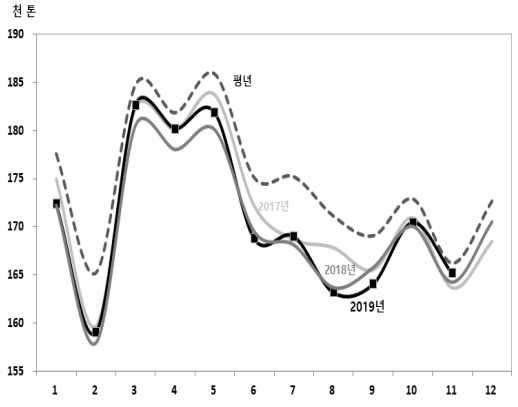
6.2. 젖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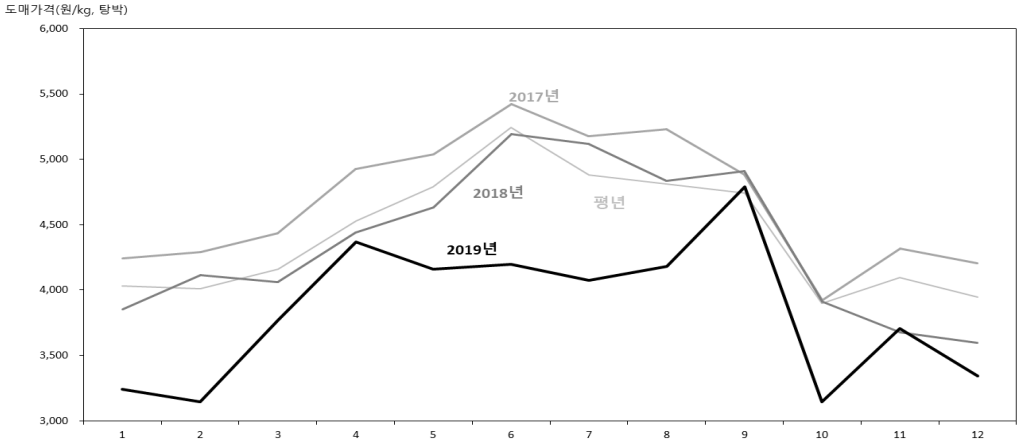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9년 4/4분기 동향
  - 12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40만 8천 마리였음.
  - 10~11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4% 증가한 33만 6천 톤임.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1/4분기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40만 8천~40만 9천 마리로 전망됨.
  - 1/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51만 5천~51만 8천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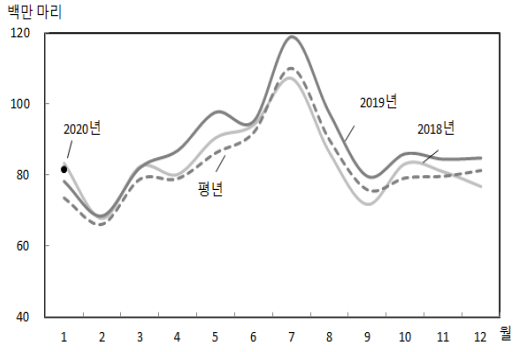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 2019년 12월 1일 기준, 돼지 사육 마릿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전년 동월보다 0.5% 감소한 1,128만 마리임(통계청).

- 4/4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가 늘어 전년 동기간(487만 마리)보다 증가한 499만 마리였음.
- 4/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많아 전년 동기간(3,728원/kg)보다 하락한 3,396원이었음.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0년 1/4분기 도축 마릿수는 출하 예정 마릿수가 많아 전년보다 0.9% 증가한 480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고기 수입량은 중국의 수입량 증가로 인한 국제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보다 감소한 8만 7천 톤으로 전망됨.
- 1/4분기 도매가격은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간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1월 2,923원, 2월 2,800~3,100원, 3월 3,300~3,6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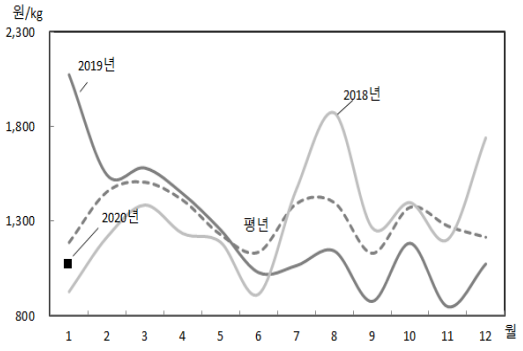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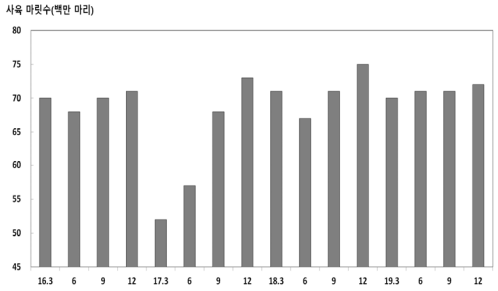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2019년 4/4분기 동향
  - 4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보다 4.3% 증가한 462만 마리로 추정됨.
  - 4분기 도계 마릿수는 종계 사육 증가로 병아리 생산이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8.1% 증가한 2억 6천 만 마리였음.
  - 4분기 평균 육계 산지 가격은 병아리 생산 증가로 도계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8.6% 하락한 1,034원/kg임.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분기 병아리 생산량은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와 종계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병아리 생산 증가로 1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7.9% 많은 수준인 2억 4천 7백만 마리로 예상됨.
  - 1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48.6% 하락한 1,067원/kg이었으며, 종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병아리 생산 감소와 증체 지연으로 인한 대닭 부족 현상이 나타났던 작년 1월에 비해 가격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남. 2~3월 육계 산지 가격에도 도계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2~3월: 1,000~1,2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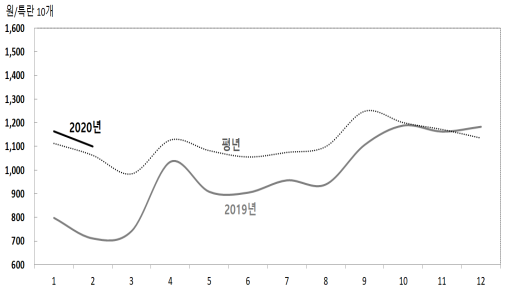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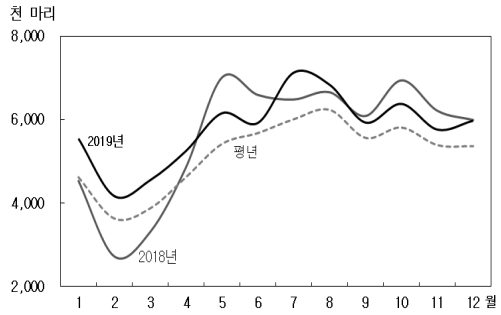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9년 4/4분기 동향
  - 12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2.7% 감소한 7,270만 마리이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5,535만 마리임.
  - 4분기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893만 마리)과 평년(755만 마리)보다 감소한 664만 마리였음. 10~11월 생산성 저하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계란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10~12월 계란 평균 산지 가격은 생산성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간보다 상승한 1,178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이었음.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3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신계군 감소 및 1월 산란 노계 도태(522만 마리)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사육 마릿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3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
    (1월: 1,164원/특란 10개, 2월: 950~1,100원, 3월: 900~1,0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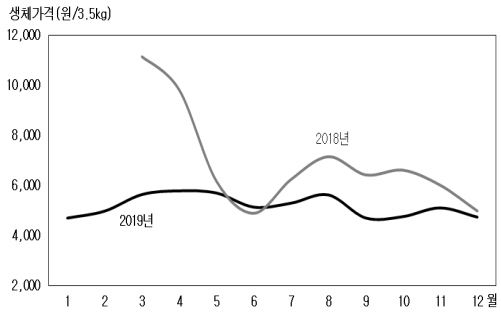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9년 4/4분기 동향
  - 12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4.0% 감소한 863만 7천 마리임. 육용 오리는 전년보다 4.5% 감소한 775만 6천 마리였으나, 종오리는 전년보다 0.6% 증가한 88만 1천 마리임.
  - 육용 병아리 입식 감소로 4/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5.5% 감소한 1,811만 7천 마리임. 도압 마릿수는 감소했으나 냉동재고량 증가로 총공급량이 늘어 4/4분기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6.9% 하락한 4,869원/3.5kg임.

- 2020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3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육용 병아리 입식 증가로 도압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3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4,400~4,900원/3.5kg으로 전망됨.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8)]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5	71.2
	101~300㎡ 이하	65	19.7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50	75.8
	4~5명 이하	38	11.5
	6명 이상	42	12.7

8)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문희(kmh0618@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2 이하인 업소가 71.2%로 가장 많고, 101~300m^2 이하 19.7%, 300m^2 초과 9.1% 순임.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5.8%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19년 4/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73(5점 척도)으로 전년 동기(2.69)와 전기(2.70) 대비 상승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18년 4/4분기	2019년 3/4분기	2019년 4/4분기
2.69	2.70	**2.73**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1/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2019년 4/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96.7로 나타나 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19년 4/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4% 증가하였고, 전기보다 0.2% 증가함.
  - 감자 4/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8.2% 증가하였고, 전기보다 3.6% 감소함.

곡류 품목별 4/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1.4	8.2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1/4분기 쌀과 감자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1/4분기)에 비해 각각 1.9%,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1.9	9.4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19년 4/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였고, 양념채소류는 0.2% 증가함.
  - 엽근채소 월평균 구매량의 경우, 당근, 배추, 무, 배추김치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7.5%, 5.7%, 3.7%, 0.2% 감소하였고 양배추가 6.0% 증가하였음. 양념채소 월평균 구매량은 마늘과 건고추가 전년 동기보다 각각 6.0%, 2.2% 감소하였고 양파, 고춧가루, 대파가 각각 5.9%, 2.4%, 1.8% 증가함.

채소류 품목별 4/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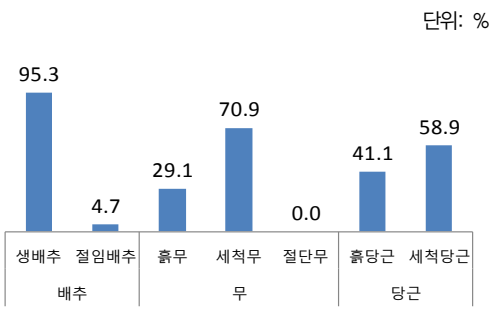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5.7	건고추	-2.2
배추김치	-0.2	고춧가루	2.4
무	-3.7	마늘	-6.0
당근	-7.5	양파	5.9
양배추	6.0	대파	1.8
소계	-2.1	소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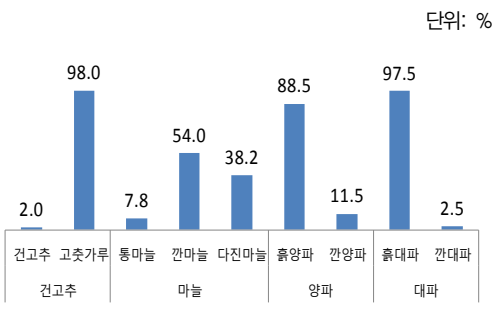
주: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채소류 품목별 구입 형태

〈엽근채소〉



〈양념채소〉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대파(97.5%), 감자(96.3%), 배추(95.3%), 양파(88.5%)이며,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4/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와 깐양파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87.4%), 깐양파(55.0%), 다진마늘(45.2%), 고춧가루(45.1%), 깐마늘(4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무, 배추, 대파, 양배추, 흙양파는 전체 구매의 90%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8년 4/4분기		2019년 4/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8.9	1.1	99.2	0.8
	배추	98.2	1.8	99.3	0.7
	배추김치	15.1	84.9	12.6	87.4
	당근	66.9	33.1	58.8	41.2
	양배추	97.7	2.3	93.1	6.9
양념채소	건고추	60.0	34.4	84.8	15.2
	고춧가루	58.7	41.2	54.9	45.1
	통마늘	76.1	23.9	79.4	20.6
	깐마늘	53.8	46.2	54.9	45.1
	다진마늘	59.7	40.3	54.8	45.2
	흙양파	86.6	13.4	90.9	9.1
	깐양파	55.1	44.9	45.0	55.0
	대파	99.8	0.2	99.0	1.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19년 4/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8.3%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61.7%로 조사되었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30.7%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5.5%로 조사되었음.

- 2020년 1/4분기 엽근채소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1/4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양념채소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엽근채소 1/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당근, 배추, 무가 전년 동기 대비 6.0%, 5.0%, 2.5% 감소하고 양배추와 김치가 각각 8.1%,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념채소 구매량은 마늘이 6.3% 감소하고 양파, 고춧가루, 대파, 건고추가 각각 5.6%, 2.9%, 2.3%,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채소류 품목별 1/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5.0	건고추	0.6
배추김치	1.8	고춧가루	2.9
무	-2.5	마늘	-6.3
당근	-6.0	양파	5.6
양배추	8.1	대파	2.3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19년 4/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함.
  - 애호박과 풋고추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9.8%, 2.3% 증가하였고, 오이는 1.6% 감소하였음.

과채류 품목별 4/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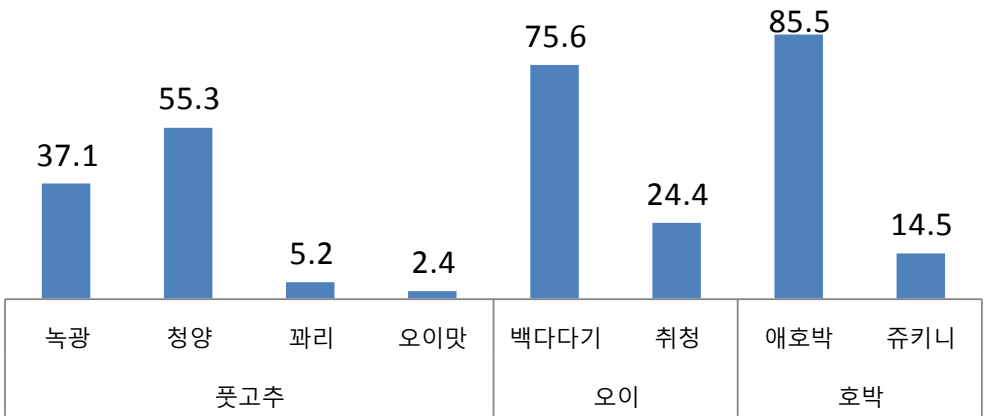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2.3	-1.6	9.8	1.0

주: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7.1%), 꽈리고추(5.2%), 오이맛고추(2.4%) 순으로 조사됨.
  - 오이는 취청오이(24.4%)보다는 백다다기오이(75.6%)를, 호박은 쥬키니 품종(14.5%)보다는 애호박(85.5%)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구입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1/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1/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애호박, 풋고추의 1/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9.6%,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이의 경우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1/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2.6	-2.0	9.6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류

- 2019년 4/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함.
  -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 쇠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0%, 5.0%, 1.3%, 0.4% 증가하였고 오리고기는 2.8% 감소함.

축산물 품목별 4/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0.4	1.3	16.0	-2.8	5.0	2.2

주: 소계는 오리고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4/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67.8%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호주산은 1.7%p 감소한 반면, 미국산 구입 비중은 2.9%p 증가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66.9%로 전년 동기 대비 5.3%p 감소하였으며, 미국산은 1.8%p, 캐나다산은 0.7%p, 칠레산은 1.9%p 증가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5.8%, 96.7%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8년 4/4분기					2019년 4/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12.4		69.5		18.1	11.2		67.8		21.0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72.2	7.9	6.5	10.4	1.7	66.9	9.7	7.2	12.3	1.7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83.6		8.0		7.4	85.8		5.0		8.2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96.7		3.3			96.7		3.3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0년 1/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9년 1/4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축산물의 1/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1.9~1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 품목별 1/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1.9	1.9	16.1	2.5	4.9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6. 기타

- 2019년 4/4분기 식재를 전처리된 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로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45.8%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18.1%)',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17.8%)',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0.8%)',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6.9%)', '단가가 저렴해서(0.5%)' 순으로 나타남.

전처리 식재의 구입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주방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45.8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	18.1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17.8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0.8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6.9
단가가 저렴해서	0.5
소계	100.0

주: 해당 조사의 대상으로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4/4분기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 '가격등락이 심함'이 30.6%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6.7%)',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19.7%)',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2.1%)',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10.9%)'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비중
가격등락이 심함	30.6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26.7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19.7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2.1
적절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함	10.9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후식 과일의 경우, 응답자의 7%만이 후식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후식 과일은 사과가 4.5%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제공 시, 수입산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가 21.7%로 가장 높았음.

후식 과일 비율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사과	4.5	수입포도	0.6
오렌지	2.1	귤	0.6
배	1.8	수박	0.3
바나나	1.5	방울토마토	0.3
파인애플	0.6	메론	0.3

주: '제공하지 않음'의 비율은 93.0%이며,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과일 선호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수입산이 더 저렴함)	21.7
국내산과 선호도 차이가 없어서	17.4
국내산의 맛/품질/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8.7
국내산보다 맛이 좋아서	4.3
손님들이 선호해서	4.3
이유 없음	43.5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7 요약 및 시사점

- 2019년 4/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18년 4/4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양념채소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0.2% 증가하고, 과채류와 축산류는 각각 1.0%, 2.2% 증가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깐양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깐마늘 순으로 높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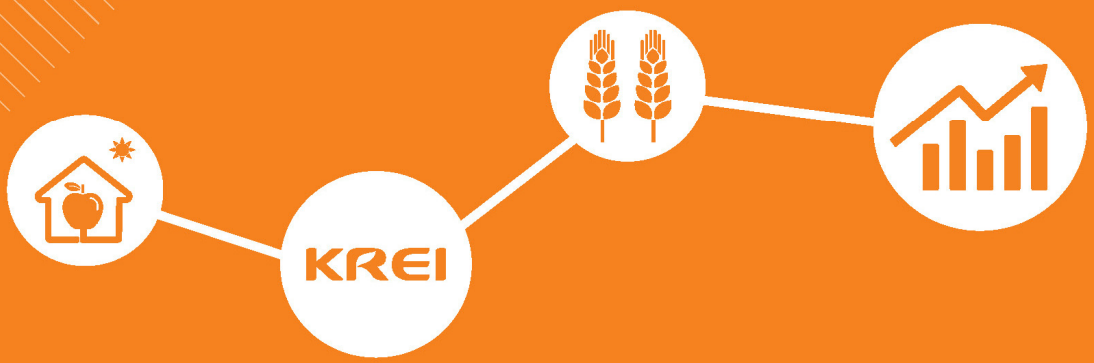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70% 이상이며, 쇠고기, 돼지고기의 국내산 비중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함.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45.8%)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자재 취급(18.1%), 인력 부족(17.8%), 재고관리 철저(10.8%) 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문제점에 대해 응답업체의 30.6%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의 어려움(26.7%),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19.7%),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2.1%), 적절한 가격 정보를 얻기 곤란함(10.9%) 순으로 조사됨.

• 후식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7.0%로 적으며, 제공하는 후식과일로는 사과, 오렌지, 배,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귤, 수박 방울토마토, 메론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1/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예상 구매량은 2019년 1/4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품목에서의 구매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별주제

❶ 2020년 10대 농정이슈

❷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2020년 10대 농정이슈[1)]

이명기 외*,

1. 2020년 농정여건

1.1. 농업·농촌 외적 여건

- 세계 경제는 신흥국 중심으로 개선이 전망되나, 미·중은 소폭 둔화 전망[3)]됨.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3.4%로 소폭 상승이 전망되지만 미국경제 성장률은 2019년 2.4%에서 2020년 2.1%, 중국경제 성장률은 2019년 6.1%에서 2020년 5.8%로 하향 전망됨.

-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반도체 수요 회복, 국제 유가 하락 전망 등의 상방요인과 미·중 무역분쟁 재개, 남북관계 악화, 브렉시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악화 등의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임.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9년 2.0%에서 2020년 2.3% 내외로 소폭 상승 전망임.
  - 완만한 경제 성장세와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2020년 실업률은 2019년(3.8%)보다 낮은 3.5% 수준 전망임.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복합시스템(CPS), 5G 상용화 등 빅데이터

1) "2020년 10대 농정이슈 "(농정포커스 186호)를 참고하여 작성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mklee@krei.re.kr), 이슈별 저자는 부록에 별도 정리함.

3) LG경제연구원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9", KDI 경제전망(2019 하반기) 인용

기술이 전(全) 산업분야에 보급·확산되어 경제·사회구조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됨.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도모, 생산·유통·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과 농촌 환경 및 삶의 질 부문에 대한 기술혁신 강화가 예상됨.

- 미래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협력 정책 제시 및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 협력 준비가 필요함.
  - 북미관계 악화에 따라 남북관계 악화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위험관리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차별화된 농업협력 프로그램을 사전에 단계적으로 준비 필요함.
  - 신남방정책에 따른 한-아세안 농업협력관계 강화, 새로운 농산물 수출처로 발전 중임.

- 국민 식생활·영양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분배·복지적 관점에서의 먹거리 문제 접근이 중요함.
  - 식품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 필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식품지원제도의 도입과 개선 추진이 요구됨.

- 분권, 포용, 혁신의 3대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 추진이 필요함.
  - 지방분권,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등의 국정의제들과 보다 연계된 지역단위에서의 농업·농촌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치유, 문화·여가, 휴양, 공동체 활동 등 농촌의 내재적 가치 활용과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해 농촌다움(Rurality)을 회복하고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함.

1.2. 농업·농촌 내적 여건

-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추구를 논의할 시점임.
  - 공익형직불제법 도입, 물관리 일원화 제도 강화에 따른 환경관리 강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농촌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농업·농촌의 공익성 향상, 쌀 수급불균형 완화, 농가 간·품목 간 형평성 개선 등을 위한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함께 농산물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저성장 국면과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고용률, 고령화 등으로 노동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임.
  - 농식품 신규수요 창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지역 푸드플랜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촉진이 필요함.
  - 농촌 및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심화, 일부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문제 대응이 요구됨.

-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농업·농촌 환경과 국민의 농업·농촌 인식 개선이 요구됨.
  -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환경부하 저감 대책 추진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추어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확산이 필요함.

- 평년기온보다 높은 겨울날씨의 지속은 원예농산물 등의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2020년 10대 농정이슈

2.1.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4)]

-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
  - 기존 직불제가 대규모 농가에 지원 집중, 쌀 편중 지원에 따른 공급과잉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농산물 안전성 확보, 자원 및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관련 법과 2조 4,000억 원의 재정 투입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시행함.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소농지불 및 면적지불)과 선택형지불(경관직불, 친환경직불)로 구성됨.

-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농지불의 합리적인 지급 방식 설계
  - 경지면적 기준 지불에 따른 대농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지불 방식을 도입함. 지급 대상 소농의 범위 설정, 지급 규모의 합리성 확보, 경지면적 분할(속칭 쪼개기)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실효성 있는 교차준수사항 마련 및 농가의 적극적 실천
  - 공익직불제는 기본적으로 농가의 공익증진 기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농가가 영농활동 과정에서 환경 및 자원 보존과 관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부는 농가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고 모니터링 가능한 교차준수 사항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농가는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

4)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역할 제고를 위한 선택형 직불제 세부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도입
  - 공익직불제로의 전면개편은 농업의 공익증진 역할에 대한 '기여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정책 방향 전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수준을 넘어서 물·토양 등의 환경 보전, 환경친화적 농법 적용 등을 견인할 수 있는 선택형 직불제 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해야 함.

-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 해소를 위해 쌀 이외 곡물 및 조사료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쌀 수급안정은 물론이며,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
  - 수확기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자동시장격리 방식 등 지원제도는 마련하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2.2.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5)]

- 4차산업혁명 시대에 IoT, AI, 복합시스템, 빅데이터 기술의 농업 가치사슬 전반으로 보급·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필요
  - 농업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문제 해결,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와 식품의 안전성 추구,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이 보급되어 왔으나, 향후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공공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역할 전환을 의미함.

5) 김연중 선임연구위원, 서대석 연구위원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센터 필요
  - 스마트농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정형데이터을 축적하고, 정형데이터와 반정형· 비정형데이터를 결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단계별 밸류체인 스마트화 전략 마련
  -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은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노지, 과수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 위주에서 유통, 소비, 전후방산업까지 연계하여 단계별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스마트농업의 커넥티드팜(Connected Farm)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농업 보급정책이 품목(축종)별 개별 농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스마트농업 확산과 성과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시설원예, 노지, 과수, 축산 등에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농기계 등을 적용하는 커넥티드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스마트농업 제품의 국가·국제 표준화를 통해 플랜트 수출 확대
  -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기술은 선진국 대비 78% 수준이고 내수시장은 협소함.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에 R&D 투자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기의 국가·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여, 스마트농업 거대 시장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플랜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스마트농업 확산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부처사업 추진
  - 스마트농업 확산은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실용화·사업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계부처, 농가 및 농산업체, 연구개발기관, 관련 지원기관 등의 협력·연계을 촉진하는 다부처 간 협력체계 및 사업 추진 필요

2.3.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6)]

- 국민 식생활·영양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분배·복지적 관점에서의 먹거리 문제 접근 필요
  - 정부는 국민 먹거리 보장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는 국가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식생활 정책에서 포용성을 강조한 정책 추진 요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농식품바우처제도의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연계를 통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및 추진 기틀 마련 필요

-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포용적 국가 실현을 위한 범부처 통합 먹거리 계획 수립·추진
  - 국민 먹거리 보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국가 푸드플랜 수립·추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부처 간 연계 강화와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푸드플랜의 현장 실행력 확보와 지역 먹거리 연계성 제고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용적 국민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한 푸드플랜 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식품지원제도 확대와 범부처 협력 강화로 먹거리 포용성 강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생계급여 형태 등 현금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현금지원은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김상효 부연구위원, 황윤재 연구위원

- 2020년에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관련 시범사업/실증연구을 통해 본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다각도로 발굴해서 향후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본사업을 위한 유통업체 POS 시스템, 정산시스템, 수혜자 정보관리시스템도 사전적으로 개발해야 함.

-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지원사업과 타 사업과의 연계 강화 추진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2개 기본법 및 20여 개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식품지원제도들을 통합·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식품지원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하나의 통합법으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요기반 확충 및 국민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역 단위 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임.

2.4.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7)]

- 생산·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신선농산물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개선대책 마련
  - 1인 가구 증가·맞벌이 가구 증가 등 편의를 중요시하는 소비 경향 확산에 따른 신선농산물 수요 감소, 기상여건 호전에 따른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한 수급과 가격 불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 재배 이전부터 체계적인 적정 재배면적 관리,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유통혁신을 통한 수요 확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행할 계획임.

7)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 채소가격안정제, 자조금단체 지원, 농업관측 등의 예산 확대
  - 조기 출하·격리·폐기 등 산지 단계에서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151억 원이었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242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물량을 배추·무·마늘·양파·고추 5품목의 생산량 대비 15%로 확대함.
  - 농업관측 강화로 농업인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적·자율적 수급 조절을 추진하도록 유도함.
  - 소비 트렌드 변화와 품목별 소비 변화 등을 고려한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함. 이를 위해 현장실측 조사 확대,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와 품목별 소비 관측 등의 사업 예산 169억 원을 책정함.

- 지자체, 생산자조직, 유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책 성과를 제고
  - 수급 조절과 마케팅 역량을 갖춘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수급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아울러 지자체는 사전적인 재배면적 조절이나 수급 사업에, 농협·도매시장 등은 수급관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책 파트너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여 생산자조직 주도 유통 및 수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농협, aT,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전국 단위 품목별 생산자조직 설립 방안을 마련해 수급관리와 유통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성공 사례를 통해 구체화함.

2.5.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8)]

-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민원 증가, 환경오염 유발, 토양 양분 과잉
  - 축산 악취 민원은 2013년 2,604건에서 2017년 6,112건으로 해당 기간 2.3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악취에서 축산 악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7% 늘어남. 특별점검 결과, 10% 내외가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토양의 질소 수지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인 수지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음. 질소 수지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3배, 인 수지는 9.1배 높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 악취, 질병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 제시를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9년 3개의 지역을 선정하였고, 2020년에는 부지 평탄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실습 교육장 설치를 지원할 계획임.

- 가축의 공장식 밀식 사육으로 가축질병에 취약하며,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는 0.2%에 불과
  - 밀식 사육은 가축질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산란계 농가의 경우 살충제 과다 사용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EU는 동물복지 사육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동물복지 기준이 미흡함.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 비중은 전체 사육농가에서 0.2%에 불과하며, 인증농가의 절반 이상이 산란계에 집중됨.

- 토양 양분 과잉 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가 2021년 도입될 예정이며 2019년에 시범사업이 추진
  - 양분관리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축산환경

8) 정민국 선임연구위원, 김현중 부연구위원

관리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양분관리제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도 필요함.

- 경지면적 감소, 양분 과잉 등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 악취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ICT를 활용한 축산시설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취 방지시설 의무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임.

- 동물복지축산의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동물복지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
  - 농장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란계의 강제 털갈이 금지, 모돈의 감금틀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6.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9)]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0~24년)에 포함된 범부처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 2005년 범부처 계획으로 처음 도입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정책 영역과 대상 과제가 계속해서 확대되어왔음.
  - 2020년 제4기로 접어드는 기본계획에서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면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임.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중앙 및 지역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9) 성주인 연구위원

-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전달 실험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도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
  -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서비스 혁신 실험(예: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생활권 육성과 연계한 교통 모델 운영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책 활용, 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의 정책 지원 수단을 마련해야 함.
  - OECD 국가들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원격교육 서비스 등의 혁신적 미래 기술을 삶의 질 관련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 단위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
  - 지금까지 지자체 단위에서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드물어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중앙정부가 마련한 계획이 주민 요구를 반영하고 농촌 특성에 맞도록 시행되려면 지자체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임.
  - 특히 지자체 간 농촌정책 추진 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어 앞으로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정책 효과의 지역별 편차도 커질 전망임. 지자체들이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수단(예: 농촌협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함.

- 중앙부처 간 정책 조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안 마련이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도를 높이도록 부처 간 조율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 필요
  - 부처 간 정책 조율·협력을 뒷받침하도록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모니터링 체계 마련, 충실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점검·평가 등의 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2.7.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10)

- 농업 인력과 함께 지역 활동가에 대한 수요 증가, 유입 인구 불충분
  - 농촌지역 공공적·사회적 활동 분야의 경우, 환경, 수자원, 교육·문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활동 및 정책이 늘어나면서 사업기획, 소통, 조직화에 종사할 활동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농어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가 상시화되고 있으며, 농어촌 거주 외국인 노동력을 충원하여 보완하고 있으나 한계점이 존재함.

-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시·농촌 간 연대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플랫폼 필요성이 제기됨.

- 농촌 유휴 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 및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사업
  -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농협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시행 주체가 되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해 노후시설의 다양한 용도 활용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공사비를 상향 조정(3억/개소→4.5억)할 예정임.
  - 유관 기관(농협·6차산업 지원센터·청년벤처컨설팅 등)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들의 경영 문제 해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대농지·창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영농정착시 초기 부담을 완화하며,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5년 거치 10년 상환) 중임.

- 예비 농업인의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및 예비 귀촌인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 실습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예비농업인에게 확대하고, 농어업분야

10) 김정섭 연구위원 감수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학기당 500명)할 예정임. 또한, 미래 농업선도 고교('19, 3개소 → '24, 10)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19, 5개소 → '24, 10)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

- 전문·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법인 취업 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인턴 채용 시 월 최대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인턴 6개월 + 정규직 채용 시 3년 추가)할 계획임.
- 청년층 귀농 확대를 위해 체류형 실습교육과정의 지속 확대가 필요하며,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등 귀촌인의 농산업분야 창업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8.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11)]

- 귀농·귀촌 확대, 농촌형 산업생태계 출현 등 농촌 공간잠재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 난개발에 대응하고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미비
  - 귀농·귀촌 인구는 2018년 약 5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주인구 중 2·30대 젊은 연령층이 가장 큰 비중(49%)을 차지함. 국민 중 10% 이상은 향후 5년 이내에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음.
  - 식품제조·가공업, 생태자원·자연경관·어메니티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사회적 농업, 마을기업·농촌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 활동이 증가함.
  - 농지에 농업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등 증가하는 농촌개발 압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 미비로, 난개발 확산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11) 한이철 부연구위원,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 농촌 생활권을 구성하는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정책 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중앙정부가, 배후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밀착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자체가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일부 농촌 지자체 내의 과잉 투자로 인한 난개발 또는 투자 축소로 인한 저개발이 우려됨.

-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대한 공통의 원칙하에 계획적 개발 추진 필요
  - 농지의 이용계획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간계획 수립, 공간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사업 추진, 관련법의 일치성 강화 등을 통해 농촌의 잠재력 확대와 가치 증대가 필요함.

-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틀 마련
  - 지자체 스스로 농촌 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를 제시함.
  -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및 지자체의 자체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제공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적 정책 실현을 위한 농촌협약제도 시범 도입·운영
  -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목표와 지자체의 특성화 발전전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협약을 체결함.
  - 2020년 9개 지자체 대상의 통합적 공간계획 수립 및 협약제도 운영을 모니터링한 후 보완·확산함.

2.9.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12)]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필요 등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
  -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3020'에 발맞추어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대부분의 재생에너지가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 더 나아가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농촌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촌주민의 수용성 개선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시스템 구축이 시급
  -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적 국민수용성은 높은 반면, 실제 발전소가 입지하는 농촌지역의 주민수용성은 현저하게 낮은 실정임. 2016년 허가가 반려·보류된 태양광, 풍력 사업의 37.5%가 주민 반발에 기인함(정성삼·이승문 2018).[13)]
  -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제도는 낮은 주민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초기 투자자금의 조달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이익공유제도 적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배당금이나 마을발전기금 등과 같은 이익공유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역주민의 수용성 개선, 사업의 지속성 및 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측면에서 주민참여형 마을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 강조

---

12) 박지연 연구위원

13) 정성삼·이승문. 『신재생 에너지 수용성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이익의 지역 환원과 무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방지 및 우량농지 훼손을 막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에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거버넌스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구체성이 부족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허가기준 및 규정이 지자체별로 상이함. 따라서 입지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산지에서의 경사도와 도로 이격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자체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정에 농경지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2.10.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14)]

-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점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
  - 정부는 북방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 동력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2017. 8.)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전략(5개)과 중점과제(14개)를 제시(2018. 12.)하였음. 12번째 중점과제인 '신북방 농업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진출 지역의 확대, 진출분야 및 품목 확대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음.
  - 정부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위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2018. 8.)하고 '사람/번영/평화'라는 기치하에 16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이 중 '신남방 국가별 맞춤형 협력'(11번) 과제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실현을 제안
  -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토대로 평화경제를

14) 김종선 부연구위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구축하여 남북이 함께 번영할 것을 제안한 만큼, 평화경제에 부합하는 농업 부문의 대북 협력 준비도 필요함.

- 농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투자 지원방식과 병행하여 추진
  - 현행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방식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정책자금을 출자하는 투자방식을 병행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규모 확대
  -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방 및 북방국가의 농산업분야에 대한 시장 및 투자환경 정보, 진출기업의 경영 실태 분석, 행정 및 법 제도 관련 상담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함.
  - 현행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해외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구축, 농업투자협력 지원센터 설립,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화경제 실현의 농업부문 대응 방안으로 단계별로 차별화된 농업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추진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과거 추진했던 경험이 있거나 남북한 당국 간에 합의했던 농업개발협력 사업을 재정비하여 남북 간 협력 환경이 조성되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 북한이 본격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교역과 투자 등 상업적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지향형 농업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함.

부록: 집필진 목록

집필진 담당 내용	집필진	전화번호	전자메일
2020년 농정 여건	이명기	061-820-2166	mklee@krei.re.kr
공익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박준기	061-820-2173	jkpark@krei.re.kr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김연중	061-820-2256	yjkim@krei.re.kr
	서대석	061-820-2260	dssuh@krei.re.kr
국민 먹거리 보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김상효	061-820-2218	skim@krei.re.kr
	황윤재	061-820-2247	yjhwang@krei.re.kr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국승용	061-820-2275	gouksy@krei.re.kr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정민국	061-820-2263	mkjeong@krei.re.kr
	김현중	061-820-2021	kim1025@krei.re.kr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성주인	061-820-2199	jiseong@krei.re.kr
새로운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김정섭	061-820-2252	jskkjs@krei.re.kr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한이철	061-820-2304	yhan@krei.re.kr
	송미령	061-820-2351	mrsong@krei.re.kr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박지연	061-820-2330	jiyunpark@krei.re.kr
농업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김종선	061-820-2210	sun589@krei.re.kr
	김영훈	061-820-2367	kyhoon@krei.re.kr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1)]

이정민*, 이명기**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1.1. 농업·농촌의 중요성

-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농업인의 52.6%와 도시민의 54.5%로 조사됨. 도시민의 경우 2011년에 73.1%에서 2015년 60.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인식은 농업인이 21.2%, 도시민 23.5%임. 이러한 인식에 대해 농업인은 2011년에 19.1%에서 21.2%로 증가하였고, 도시민은 2011년 17.1%에서 23.5%로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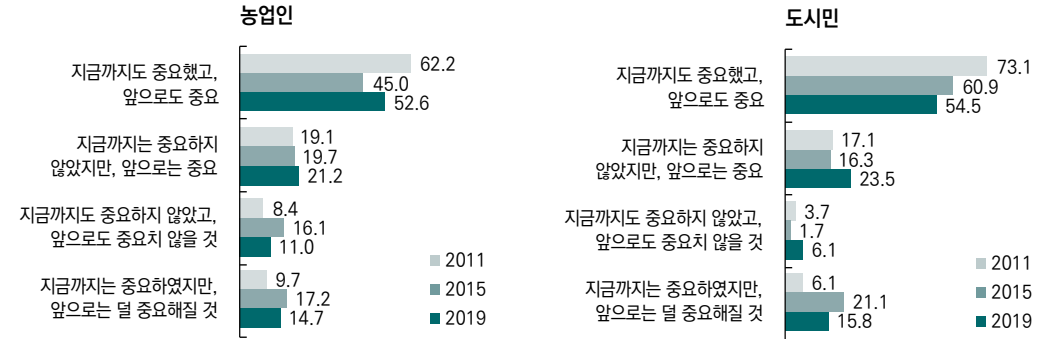
-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는 인식 비율은 농업인 73.8%, 도시민 78.0%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앞으로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에 대해 동감하는 비율은 2011년 농업인의 81.3%, 도시민의 90.2%보다 감소함.

---

1)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정포커스 185호)를 참고하여 작성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fantom99@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mklee@krei.re.kr)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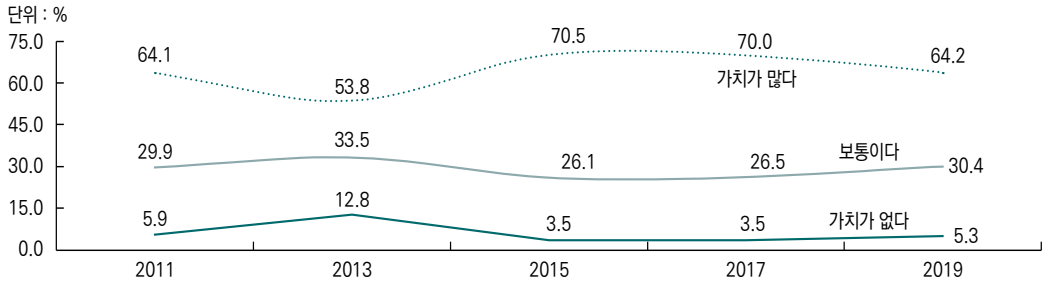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각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1.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도시민은 '가치가 많다'('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라는 답변이 64.2%, '가치가 없다'('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는 답변은 5.3%로 조사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가치가 많다' 답변은 2017년의 70.0%에서 2019년 64.2%로 5.8%p 감소하였으며, '보통이다'는 2017년 26.5%에서 2019년 30.4%로 3.9%p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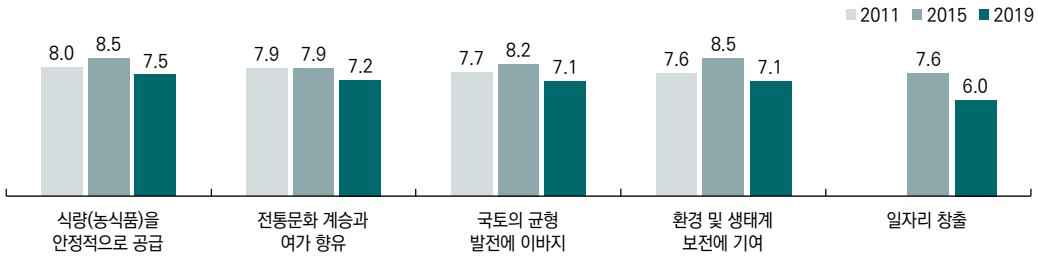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여부(%)



주: '가치가 많다'는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률의 합계이며, '가치가 없다'는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각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도시민은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7.5점/10점 만점)'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7.2점)',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7.1점)'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2011년 이후 7점 내외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수치 자체는 감소하고 있음.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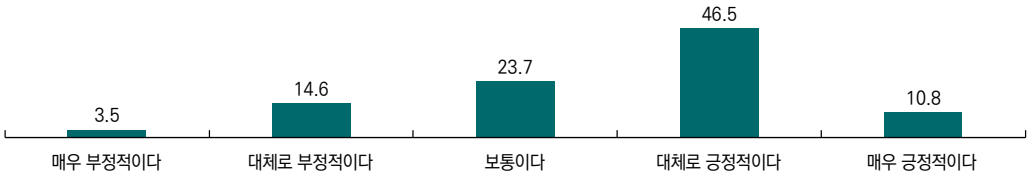


주 1.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2. 2011년 및 2015년은 5점 척도 조사결과를 환산하였으며, 2019년은 10점 척도로 조사됨.
자료: 각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1.3.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농업인 인식

- 2020년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업인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농업인의 10.8%가 '매우 긍정', 46.5%가 '대체로 긍정'으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57.3%가 긍정적인 개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부정적('매우 부정적'과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은 18.1%였으며, '보통이다'는 23.7%로 조사됨.
  - 직불제 단가영향을 받은 노지채소 농가에서 긍정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과수 및 특작 농가도 각각 64.6%와 60.4%의 긍정 비율을 보임. 수도작 농가의 긍정 비율은 41.8%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농업인 인식(%)



주: 무응답과 '모름' 응답비율은 제외됨.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개도국 지위 전환 보완대책으로 필요한 과제로 농업인은 '공익형 직불제(44.7%)'를, 도시민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강화(37.9%)'를 우선 선택함.

품목별 농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매우 부정적이다 (①)	대체로 부정적이다 (②)	①+②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③)	매우 긍정적이다 (④)	③+④	계
수도작	380	6.8	22.1	28.9	27.6	33.7	8.2	41.8	100
노지채소	187	2.7	8.6	11.2	19.8	58.8	9.6	68.4	100
과수	356	0.6	9.8	10.4	24.7	50.3	14.3	64.6	100
특작	192	3.6	11.5	15.1	24.0	47.9	12.5	60.4	100
시설원예	176	2.8	17.6	20.5	19.3	48.9	10.8	59.7	100
축산	131	5.3	16.8	22.1	19.1	50.4	8.4	58.8	100

주: 기타와 무응답은 제외됨.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참고 내용>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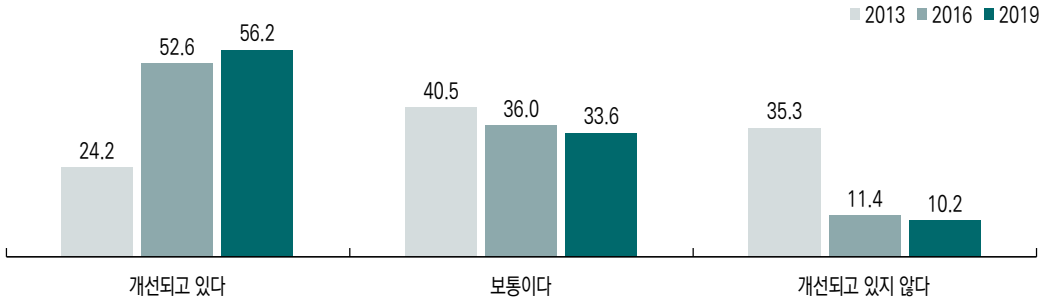
공익형 직불제 개편 기본 방향	관련 예산
1. 중소 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급(소농직불금) 2. 쌀·밭직불 등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 지급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2019년 1.4조 원 → 2020년 2.4조 원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NABO 브리핑 제74호;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4.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시민의 56.2%가 '개선되고 있다'('매우 개선'과 '조금 개선')라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되고 있지 않다'('전혀 개선되지 않음'과 '별로 개선되지 않음')는 비율은 10.2%로 나타나 도시민은 식품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민은 2013년의 24.2%에서 2019년 56.2%로 32.0%p 크게 증가함. 반면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응답 비율은 동 기간 25.1%p 감소한 점에서 볼 때, 도시민들은 최근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도시민이 생각하는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 개선 여부(%)



주 1.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2. '개선되고 있다'는 '매우 개선되고 있다'와 '조금 개선되고 있다'의 합이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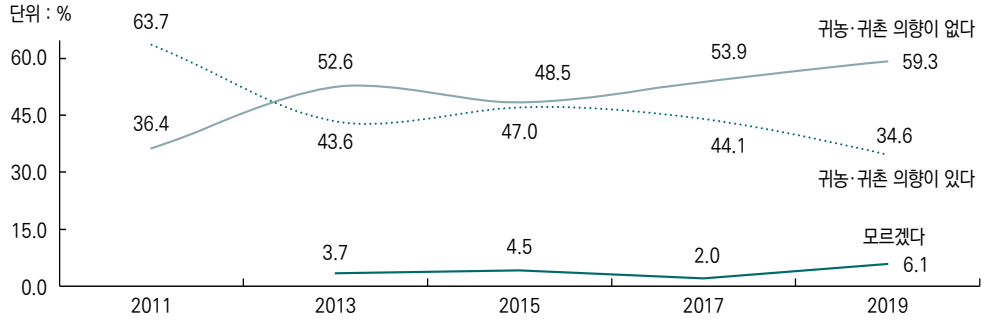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농업인 생활 만족도

2.1.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

- 도시민들에게 은퇴 후 귀농·귀촌 생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6%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9.3%는 '귀농·귀촌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 비율은 2011년의 63.7%에서 2019년 34.6%로 29.1%p 감소함. 반면 '귀농·귀촌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2011년의 36.4%에서 2019년 59.3%로 22.9%p 증가한 점에서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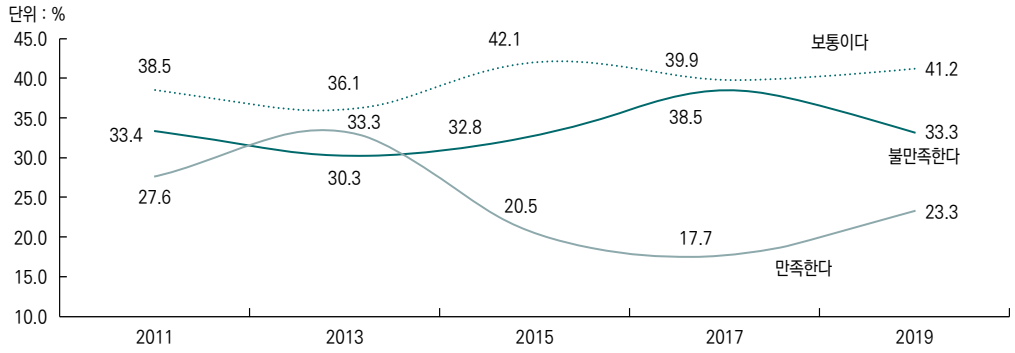
-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로 귀농·귀촌 의향자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46%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21.4%를 차지하였음.
  - 귀농·귀촌 의향자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를 선택한 비율은 2011년(61.5%)보다 감소(15.5%p)한 반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와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응답 비율은 동 기간에 소폭 상승하였음. 이는 자연(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2.2. 농업인 직업 만족도

-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다소 만족 및 매우 만족)'가 23.3%로 2017년보다 5.6%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비율은 33.3%로 2017년 대비 5.2%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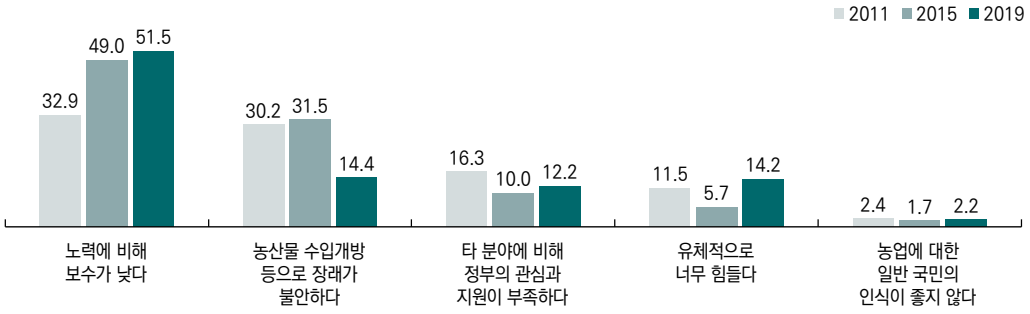
연도별 농업인 직업 만족도 변화(%)



주: '만족한다'는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 응답률의 합계이며, 불만족한다는'매우 불만족'과 '다소 불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해당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51.5%)'라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이어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4.4%)'가 지적됨.
  -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응답률이 2011년의 32.9%에서 2019년 51.5%로 18.6%p 증가한 점에서 노동력 투입 대비 농업 소득수준이 낮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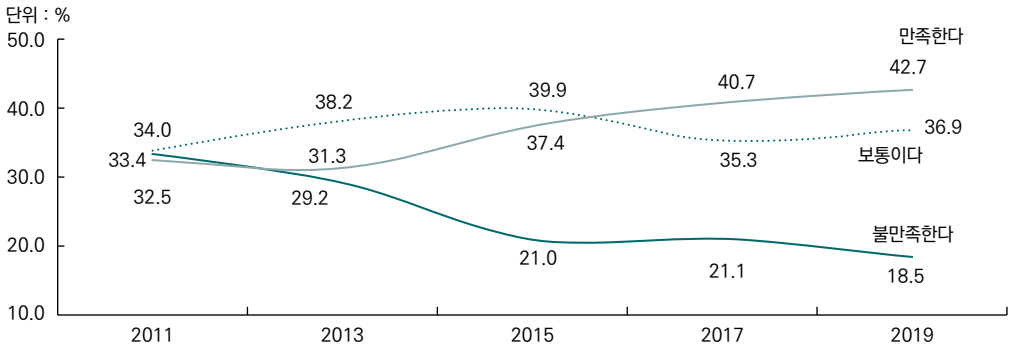


자료: 해당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2.3. 농촌생활 만족도와 농업경영 위협요인

-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만족한다(다소 만족 및 매우 만족)'가 42.7%로 2012년보다 10.2%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는 18.5%로 동 기간 동안 14.9%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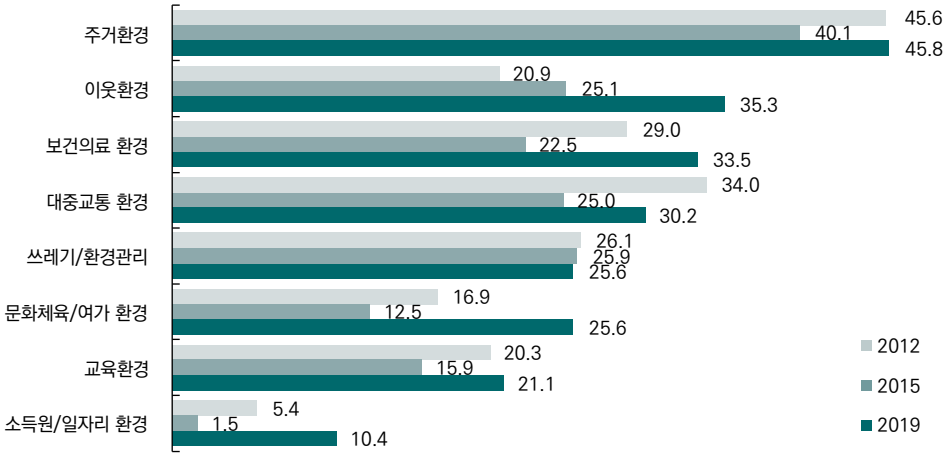
연도별 농촌생활 만족도 변화(%)



주: 만족한다'는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 응답률의 합계이며, 불만족한다는'매우 불만족'과 '다소 불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해당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분야별 농촌생활 만족도는 '주거환경' 분야가 45.8%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웃환경', '보건의료 환경', '문화체육/여가환경' 분야 만족도가 2012년 대비 증가했지만, '대중교통 환경' 분야 만족도는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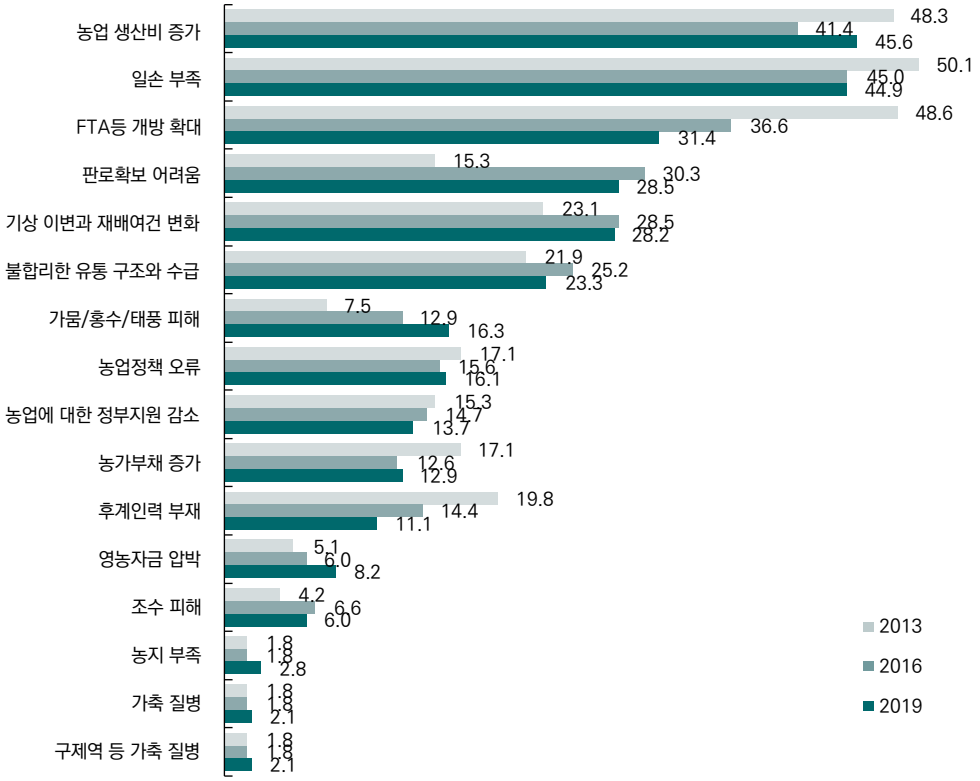
분야별 농촌생활 만족도 변화(%)



자료: 해당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를 45.6%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일손 부족'을 44.9% 선택함.
  - 2013년 이후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FTA 등 개방 확대'는 농업경영의 주 위협요인으로 꾸준히 지적하고 있으나, 'FTA 등 개방 확대'는 2013년보다 17.2%p 감소하여 시장 개방 등의 외부 충격보다 생산비(경영비) 증가, 노동력 부족 등의 시장 내 문제점이 주로 지적됨.

농업경영의 주 위협 요인(복수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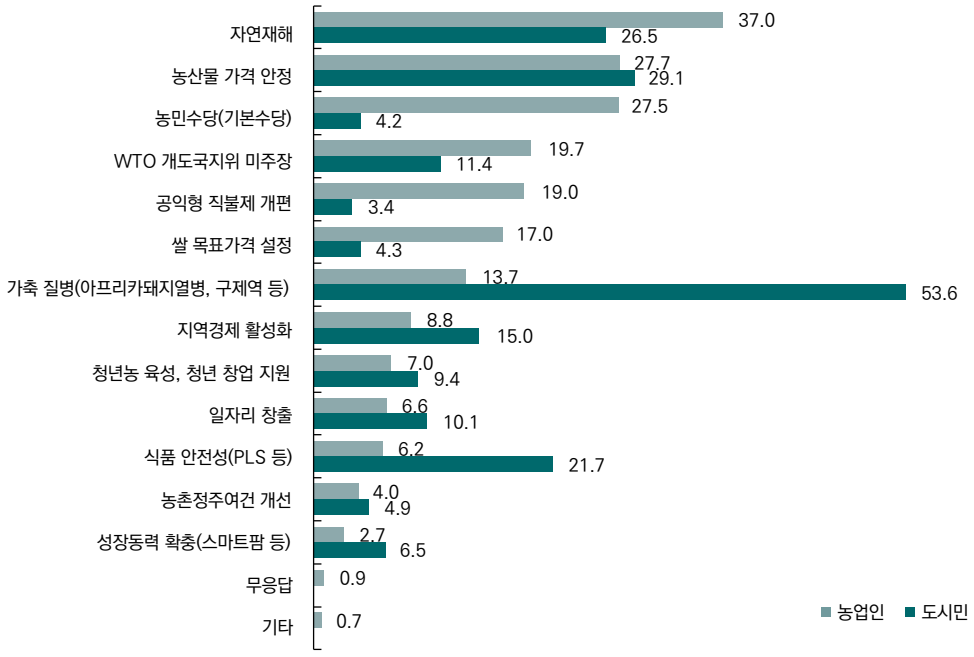
자료: 해당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3. 농업·농촌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3.1. 농업 이슈에 대한 인식

- 올해 농식품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로 농업인은 '자연재해(37.0%)', '농산물 가격 안정(27.7%)', '농민수당(27.5%)'을 선택하였으며, 도시민은 '가축 질병(53.6%)', '농산물 가격 안정(29.1%)', '자연재해(26.5%)' 순으로 응답함.
  - '농산물 가격 안정' 이슈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관심도가 높았던 분야이며, 이외 도시민이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는 '식품 안전성(21.7%)', '지역경제 활성화(15.0%)' 등이 있음.

올해 농식품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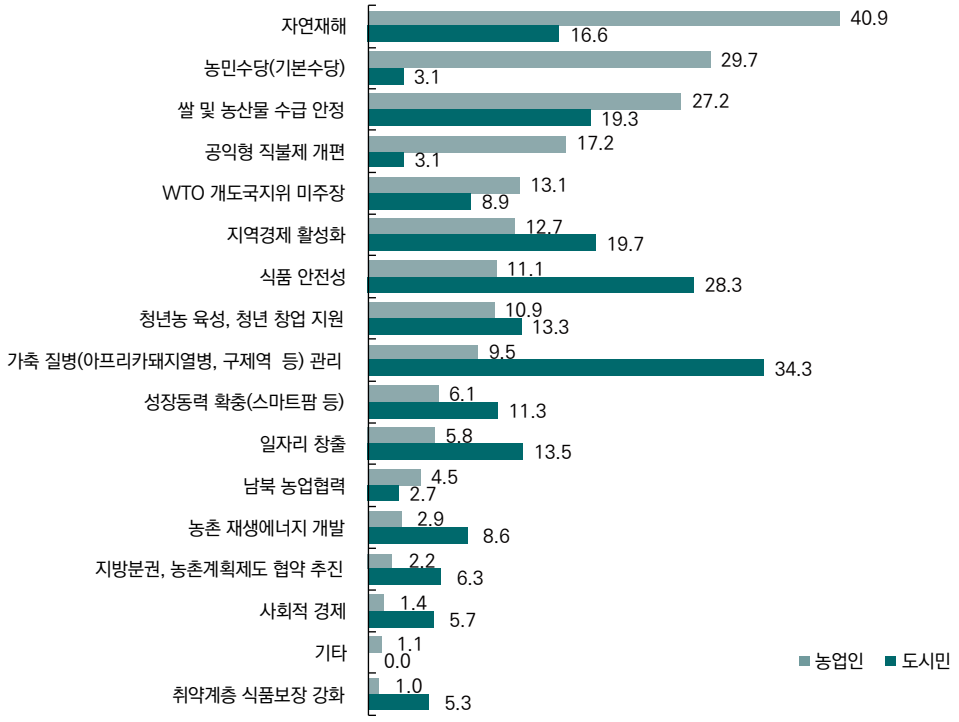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3.2. 향후 농식품 분야 주요 과제

- 농업인은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연재해(40.9%)', '농민수당(29.7%)'을 답변하였으며, 도시민은 같은 질문에 대해 '가축 질병 관리(34.3%)', '식품 안전성(28.3%)'을 선택함.
  - 이외 농업인은 '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27.2%)', '공익형 직불제 개편(17.2%)'을 주요 이슈로 답변하였으며, 도시민은 '지역경제 활성화(19.7%)', '쌀 및 농산물 수급 안정(19.3%)' 순으로 답변함.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중요한 과제(중복응답, %)



자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

4. 시사점

-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과반수 이상 공감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식량의 안정적 공급,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 공간 제공, 국토 균형발전,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구체적인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에 농업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차질 없는 준비·시행을 통해 기존 직불제의 단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의 국내산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에 관한 사후 관리 및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도시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가 계속되는 환경에서 이들의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해소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층 유입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는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농업·농촌이 가진 치유, 문화·여가, 휴양,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올해 주요 농식품 이슈로 농업인은 ‘자연재해’를 선택함. 이는 병충해 발생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도시민은 ‘가축 질병’, ‘농산물 가격 안정’, ‘식품 안전성’ 등을 선택해 도시민 이슈는 안전한 농식품으로 판단됨.

- 향후 5년 내 주요 이슈로 농업인은 ‘자연재해’, ‘농민수당’, 도시민은 ‘가축 질병 관리’와 ‘식품 안전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들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01-2019-04

농업·농촌경제동향 2019 겨울호 | 제22권 제4호 (통권86호)

등 록
인 쇄 2020. 2
발 행 2020. 2
발행인 김홍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KREI 농업관측본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061-820-2116 Fax.061-820-2409
http://www.krei.re.kr